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50호

Wednesday, July 30 2025 A

“한미동맹 철통, 한국 지킨다”

트럼프, 정전협정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아 ‘한국전 정전기념일’을 선포했으며 퇴임 전인 2020년까지 매년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메시지를 통해 “아시아에 공산주의 악령이 여전히 버티고 있더라도, 미국과 한국 군대는 현재까지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일치단결해 왔다(Although the evils of communism still persist in Asia, American and South Korean forces remain united in an ironclad alliance to this day)”면서 “우리 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외교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를 보호하고 ‘안전, 안정화, 번영, 그리고 평화’의 소중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이를 위해 전념할 것(Guided by my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peace through strength,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we remain steadfastly committed to safeguar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working together for the noble causes of safety, stability, prosperity, and peace)”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 이상이 흘렀으나 아직도 분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첫 임기 중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에 갔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위해 북

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제재를 가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에서 모두 3만2천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9만3천명이 부상, 수만명이 포로로 잡히고 실종됐던 사실을 되새기며 그들의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이번 메시지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개입을 명확히 하고 장진호(Chosin Reservoir),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 폭찹힐(Pork Chop Hill) 전투 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윤미 기자

요즘 뉴스 엽스타인 도배

WP 여론조사, 미국인 64% 관심

워싱턴포스트가 28일 10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26%가 관련 파일에 대한 뉴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38%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적다는 답변은 24%, 아주 없다는 답변은 11%였다.

대체로 50%가 넘는 관심도를 보이는 사회적 이슈가 드물다는 점에 비추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원 관심도(73%)가 무당파(66%), 공화당(56%), MAGA 핵심 지지계층(58%)보다 더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만족(58%)이 만족(16%)이나 무응답(26%)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MAGA(43%)와 공화당(38%) 만족도가 민주당(7%)과 무당파(8%)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엽스타인 파일을 모두 공개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력하게 찬성한다(67%), 다소 찬성한다(19%)가, 각

종 반대 의견(5%)을 압도했다.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민주당(90%)은 물론 공화당(83%)과 MAGA(82%) 진영에서도 매우 높았다.

엽스타인 파일이 공개될 경우 누가 가장 큰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추측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갑부(84%), 민주당 정치인(66%), 트럼프 대통령(61%) 순이었다. 공화당원은 민주당 정치인과 갑부 답변 비율이 높은 반면, 민주당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하는 비율이 높았다. 엽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자살했는지 혹은 타살당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타살(44%) 답변이 자살(15%)의 세배에 달했다.

각종 언론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수감 중인 지난 2019년 사망한 억만장자 엽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으며 모종의 사건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엽스타인 파일을 관리했는데, 그들이 뭔가 갖고 있었다면, 벌써 공개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백악관은 “북 비핵화” 한국은 언급 없어

대통령실 “북한과 대화 열려있어”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라는 대미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

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미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 2면 ‘북 비핵화’로 이어집니다

35년 거주 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구금돼

영주권자 신분의 한인 과학자가 한국에 다녀왔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구금됐으나 변호사 조력 권리도 무시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29일자 인터넷 기사〈변호사가 말하길, 영주권자인 과학자가 설명도 없이 일주일 동안 억류됐다(Scientist on green card detained for a week without explanation, lawyer says)〉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인 김태흥(Tae Heung Kim, 40세)씨는 텍사스 A&M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으로 5세 때 미국에 이민와 아직 영주권자 신분이었다. 그는 현재 라임 병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동생 결혼식 참석차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돌아오던 공항에서 명확한 이유도 없이 구금됐다.

워싱턴포스트는 국경세관보호국

(CBP)에 김씨가 장기간 억류됐던 이유와, 수정헌법 제5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김씨 측은 2011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됐던 점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회봉사 등 판결 조건을 모두 충족해 전과 기록이 비공개로 처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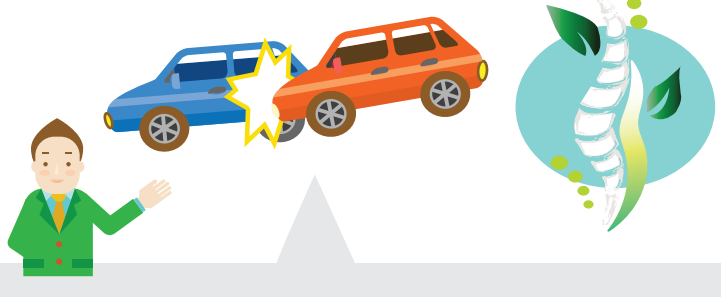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맨해튼 고층빌딩 돌며 총기난사

뉴욕 맨해튼 중심부의 고층 오피스 빌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뉴욕 시 경찰관과 글로벌 금융사 블랙스톤 임원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8일 오후 6시 30분쯤 뉴욕 미드타운 파크애비뉴 345번지에 위치한 44층짜리 마천루에서 발생했다. 이 건물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회계법인 KPMG, 도이체방크, NFL 본사, 아일랜드 총영사관 등 주요 금융기관과 국제기구가 다수 입주해 있다. 용의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27세 남성 셰인타무라(Shane Tamura)다. 범행 이틀 전부터 콜로라도·네브래스카·아이오와를 거쳐 뉴욕으로 이동한 뒤 단독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28일 뉴욕 맨해튼 총기 사건 현장에 접근 금지 띠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023년 네바다에서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무라는 범행 당일 오후 고급차량 BMW에서 M4 스타일의 공격용 소총을 들고 내려 건물 로비로 진입했다. 그 직후 뉴욕시 경찰 소속인 디다를 이슬람 경찰관에게 첫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이어 타무라는 접수처 뒤에 숨어 있던 보안요원과 몸을 피하려던 여성에게도 총격을 가했으며 이후 엘리베이

터를 타고 33층 부동산 사무실로 이동해 또 다른 남성 1명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현재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머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내가 알고 사랑하는 맨해튼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총기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다.

문상혁 기자

연준, 금리 동결 가능성 높아

(Fed)

30일 FOMC 회의, 단기 4.50%p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단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의에서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지만 연준이 금리 동결을 택할 확률이 아주 높다.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

한 연준 이사회 위원 두 명이 30일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데, 만약 이렇게 되면 1993년 이후 두 명의 이사가 연준 의장에 반대표를 던지는 일은 처음이다.

금리와 관련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 경제를 보는 견해 차이는 이례적으로 크며, 여러 분야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연준은 견고한 경제는 과열과 인플레이션 폭발을 막기 위해 금리가 비교적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차입 비용을 낮추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이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없다”며 연준이 현재 약 4.3%인 단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기자

▶ 1면 ‘북 비핵화’에서 이어집니다

대화라는 방식만 강조했을 뿐 김영정이 부정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는 미국, 일본의 반응과 대비된다. 백악관은 해당 답화 관련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

려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 폐기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입장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나온 입장 중 비핵화를 언급한 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한·미 간 견해가 일치하

다”고 밝힌 정도가 전부다.

다만 이는 대북 군축 협상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영정이 노골적으로 비핵화를 부정하는데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거론하지 않은 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현주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순회법원, 주지사 지명 주립대학 이사 임명 무효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의 조나선 프리텐 판사가 주립대학 이사 임명을 잠정 보류시켰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대학과 조지 메이슨 대학, 버지니아 군사대학 등의 이사 8명을 지명했으나, 민주당이 장악한 주 상원의회에 서 부결됐다.

각 대학 이사회가 의회 인준 실패

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들을 이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리텐 판사는 “주지사의 지명권에 맞서는 의회의 권한을 지켜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MD연방 상하원의원 ICE 구치소 방문 거부당해

메릴랜드 출신의 연방상원의원 2명과 연방하원의원 3명이 볼티모어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정문 앞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의원들은 구치소 내부를 둘러보고 인권침해 소지 등을 가려낼 예

정이었다.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은 “구치소 측에 미리 통보했어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정문 앞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

의원들은 ICE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동성애 단체, 페어팩스 기존 정책 고수 주장

동성애자 지지 단체 ‘FCPS 프라이드’가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당국이 기존의 동성애자 포용적 정책을 고수할 것을 주장했다.

연방교육부는 최근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4개 교육청이 연방교육법을 위반하고 성정체성

에 기반한 화장실 규정 등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연방교육부 지적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지역 랜턴플라이 개체수 급증

워싱턴 지역에서 아시아 원산지의 해충 랜턴플라이 개체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2014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처음 발견된 랜턴플라이는 버지니아와 메

릴랜드 등 대서양 연안 15개주에 출몰하고 있다.

마이클 라우프 메릴랜드대학 교수는 “이 곤충이 각종 농작물과 나무를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 특정 수종 점령해 병충해 취약

워싱턴 지역의 수목 다양성이 높지 않아 병충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DC 전체 면적의 39.7%가 나무로 덮혀 평균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정 수목이 대

부분 차지하고 있어, 에머랄드 애쉬 보러 등 4가지 주요 해충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볼티모어 시티는 단풍나무가 22%, 오크 나무가 12%를 차지하는 등 수종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김욱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7월 30일(수) 95-75

31일(목)	89-70		3일(일)	81-62	
1일(금)	75-64		4일(월)	81-64	
2일(토)	80-61		5일(화)	82-6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개척교회 사모 초청 행사

워싱턴 교역자회 주최

워싱턴지역 교역자회(회장 양경옥 목사)는 지난 21일, 지역 내 개척교회 사모 10명을 초청해 '함께해요 사모님'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하루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사모들이 '목사의 아내'나 '자녀들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존중받고 힘을 누리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워싱턴 베다니장로교회(담임목사 김영진)의 섬김으로 체사픽 만이 내려다 보이는 볼티모어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보트 투어를 하며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버지니아로 이동해 만찬과 함께 워싱턴비전교회(김찬영 목사)에서 남편 목회자들이 직접 준비한 편지를 낭독하며 감동적인 시간을 이어갔다. '사모님'이 아닌 '당신'이라는 호칭



속에 담긴 사랑과 감사에 참석한 사모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이어진 세족식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며 헌신을 다시 고백하는 이례적인 장면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걷는 길이 외로운 길만은 아니라는 위로와 용기, 도전 받는 시간이었다"며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워싱턴지역 교역자회는 올해 은퇴 세미나, 목회자 자녀 학비 보조 세미나, 동부지역 체육대회 후원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왔으며, 후원의 손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은혜로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윤미 기자

노인연합회 광복절 행사

8월25일 사랑의 쌀 나눔도

워싱턴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가 오는 8월15일(금)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아가페 시니어 건강복지센터(6349 Lincolnia Rd Alexandria, VA)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는 한인사회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두 단체는 8월25일 정오에 H마트 버크점에서 '8.15 독거노인 사랑의 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우태창 회장은 "1945년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분들에게 광복절을 맞아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이분들의 고독사 방지와 우울증 개선 및 치매 예방을 위해 동포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단체 측은 후원금(Pay to the Order of : K.S.C.A. 1609 Great Falls St, Suite 243, Mclean VA 22101)을 모금하고 있다.

주최 측은 추석 등 명절에도 사랑의 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8.15 독거노인 사랑의 쌀 행사는 광복절을 맞아 독거 노인 등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원주시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2001년부터 매년 8월 15일에 "8.15 빈곤해방의 날" 선포식을 열고,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에게 쌀을 지원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 행사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주지역에서는 우태창 회장이 H마트 버크점에서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워싱턴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노바 페어팩스, 최고의 병원 선정

유에스 뉴스&월드 리포트

2025-26 워싱턴 순위 발표

버지니아주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이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2025-26년 워싱턴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번 순위를 매기기 위해 무릎 교체 수술부터 뇌졸중, 심장마비 치료에 이르기까지 병원에서 자주 치료하는 22가지 수술 시술과 질병을 살펴보았다.

이 결과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에 이어 메드스타 워싱턴병원이 2위를 차지했고, 알링턴에 있는 VHC 헬스가 3위에 올랐다. 조사에서 이들 3개 병원은

환자 치료 결과가 매우 좋았고, 진료받는 환자들을 잘 돌보는 데 필요한 경험과 임상 자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위에는 버지니아 프리드리クス버그에 위치한 메리 워싱턴병원이 자리매김을 했고, 그 뒤를 존스홉킨스 시빌리 기념 병원과 메드스타 조지타운대학 병원이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워싱턴DC에 있는 국립아동병원은 소아과 분야에서 전국 최고 병원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존스홉킨스병원은 2025-26년 전국 최고 병원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2025-26년 최고 병원 순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S. News & World Repo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한 기자

양당 이념 차이 그대로 드러내

VA 연방의원선거 후보 토론회

지난 28일(월) 오후 6시 레스톤시민연맹 주최로 연방의원 제11지구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려 치열한 이념 공방을 이어갔다.

제임스 워킨쇼우(민주)와 스튜어트 워트슨(공화) 후보는 후보 확정 이후 첫 토론회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압박했다.

두 후보는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정책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스라엘-가자 전쟁, 투표권 확대 법안 등에 대해 상반된 견해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당선된다면 무슨 법안을 처음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워트슨 후보는 1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한 감사강화법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워킨쇼우 후보는 연방효율부(DOGE)에 대한 예산을 전액 환수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 선거를 위한 조기투표(우편투표 포함)는 이미 25일 시작됐다. 법률에 의해 조기투표는 투표일(9월9일) 사흘 전인 9월6일까지 이어진다.

8월28일까지는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청사와 레스톤 노스카운티 정부 청

사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8월29일부터는 투표소가 11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선거는 제리 코넬리 의원의 유고로 치뤄지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현역 의원 공석 상태로 열린다.

워트슨은 그레이트 폴스 거주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알려졌다. FBI를 거쳐 현재 비영리 씽크탱크 이사로 일하고 있다. 워킨쇼우는 애난데일 거주자로 코넬리 전 의원의 비서로 일하다가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브래덕 디스트릭) 재선에 성공했다.

김옥채 기자

몽고메리 경찰, 노인표적 전문 사기꾼 체포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은 노인 피해자들이 사기 환불과 관련해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용의자를 체포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플로리다주 출신 찰스 호를레센(31)은 지난 23일 메릴랜드 쿨랜스 카운티

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는 기술 지원 사기와 관련 몽고메리 주민으로부터 2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호를레센은 21일 노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

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인 노년 여성을 만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는 과도한 환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은행 계좌에서 2만 달러를 인출하여 호를레센에게 전달하고 문제

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호를레센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포 구금했다.

김성환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1석5조 통합보험



5 in 1

- Life Insurance 생명보험
-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융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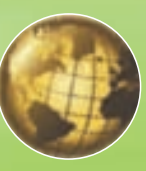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UC 가주 한인 입학생 3851명 역대 최대

2025년 가을학기
중국 등 이어 아시아계 5위
9개 캠퍼스 10만명 돌파
신입생 중 가주출신 68%

올해 UC 계열 합격 통지를 받은 가주 출신의 한인 신입생 및 편입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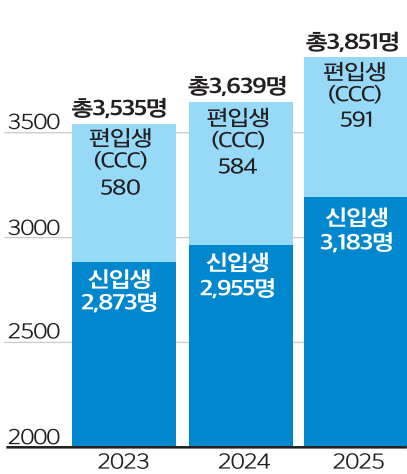
또, UC 계열 가주 출신 신입생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UC 총장실에 따르면 UC 계열 올해 가을 학기 가주 출신의 한인 신입생 및 편입생은 3851명이다. 이는 2023년(3535명), 2024년(3639명)에 이어 계속 늘면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올해 가을 학기에 합격 통지를 받은 가주 출신의 아시아계 학생만 따로 추려보면 한인은 중국(1만 3094명), 인도(8504명), 베트남(6727명), 필리핀(6432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UC 계열 아시아계 총 학생 중 약 9%가 한인인 셈이다.

합격 통지를 받은 가주 출신의 한인 학생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한인 신입생은 3183명이다. 전체 한인 입학생 5명 중 4명(약 83%)이 1학년으로 입학

연도별 UC계열 한인 입학생



했다. 3학년으로 입학하는 한인 편입생은 591명이다. UC 총장실은 가주 출신으로 타주 대학에서 편입 등으로 집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번 가을 학기의 UC 계열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 합격자는 총 18만 382명이다. 이 중 가주 출신은 12만 8760명(편입생 2만 7813명 포함)이다. 신입생만 놓고 보면 전체 신입생의 약 68%가 가주 출신인 셈이다.

UC 측은 “가주 출신 신입생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UC 내 주요 학교별로 보면 가주 출신 신입생은 UCLA가 8575명(타주 및



지난해 UCLA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학교 배너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UCLA 홈페이지 캡처]

유학생 포함 총 1만 3600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약 200명 줄었다.

UC 계열 중 가주 출신이 가장 적었지만, 이는 치열한 합격률(9%)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UC 버클리는 전체 신입생 1만 4451명 중 9874명(68%)이 가주 출신으로 집계됐다.

가주 출신 신입생 합격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UC 리버사이드(5만 3579명)와 UC 머시드(4만 1785명)로 나타났다. 두 학교는 맞춤형 조기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입생 평균 등

록률은 7~1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출신 신입생의 인종별로는 라틴계가 약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아시아계(33%), 백인(18%), 흑인(6%), 원주민(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주 출신 신입생 중 저소득층은 42%,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4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성별로는 가을 학기 합격자 54%는 여성, 42%는 남성, 중성 1%, 트랜스젠

더 1%, 기타 3%로 집계됐다.

현재 UC 계열은 LA, 버클리, 어바인 등 9개 학부 및 대학원, 전문대학원(SF) 1개를 운영한다. 그동안 UC 계열은 가주 정부와 주민 요구로 가주 출신 학생을 늘려왔다. UC 계열 학부 담당 한미 윤우 입학처장은 LA 타임스 인터뷰에서 “더 많은 가주 출신 학생에게 UC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주 전체를 위한 일”이라며 “뛰어난 이들에게 UC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LA 시니어노숙 급증... 복지 서비스는 축소

트럼프 OBBBA 법 시행 여파
미리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
시니어 지원 예산은 단 1%

LA 지역 시니어 노숙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노숙자 전수 조사 결과를 인용, 올해 65세 이상 노숙 인구는 지난해보다 17% 이상 증가한 4680명에 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23년(3427명)과 비교해도 약 36%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매체는 팬데믹 시기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연방·주 정부의 예산 지원이 대부분 종료되고 있지만, 시니어 센터·의료 연계 등의 복지 서비스는 되레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시행되면 그 여파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Medi-Cal) 예산 1

조 달러 감축이 예고돼 단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샌퍼낸도밸리에서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원제너레이션(ONEgeneration)’은 전체 7개 센터 중 최소 2곳의 폐쇄를 검토 중이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시니어를 위한 무료 식사 배달 프로그램 역시 30%가량 축소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최근 혼자 사는 101세 노인이 있었는데 신규 등록을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기존 수혜자에게도 서비스 중단을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회복지 비영리단체인 JFSLA도 메디케이드 삭감과 시 예산 감소로 인해 주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 바이처 JFSLA 대표는 “시니어 층이 거리로 내몰리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노숙자가 되기 전에 막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LA시의 경우 올해 13억 달러 규모 예산을 발표하면서 노인국(Department

of Aging)을 청년·고용 부서와 통합했다. 시정부 측은 통합이 시니어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니어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인타운 내 사회복지 기관들도 이러한 서비스 축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니어센터의 한 관계자는 “부서 통합은 결국 재정 예산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시니어 복지 서비스 감소로 직결된다”며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니어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니어층 노숙은 막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위기”라며 정책적 우선순위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통과된 노숙자 대응 세금 조치 ‘Measure A’로 확보된 예산 6억 3700만 달러 중 시니어를 위한 항목은 500만 달러로 전체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강한길 기자

도로 불법점거 후 떼강도·약탈 빈발

차 레이싱 모임 등 참가
군중심리로 범죄 이어져
LA 인근만 한달새 17건

남가주 지역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벌이는 자동차 레이싱 및 트리프트 구경꾼들이 떼강도나 약탈자들로 돌변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NBC4 뉴스는 최근 한 달여 동안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캄튼, 카슨, 레이크우드, 다운리 등에서 이런 유형의 상가 약탈 떼강도 사건이 17건 이상 발생했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KCAL, 폭스11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도 LA 지역에서 3건 이상의 상가 약탈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 떼강도 사건은 도로를 불법 점거한 레이싱 및 트리프트 모임인 ‘스트리트 테이크 오버’ 현장에 몰려든 군중이 이벤트가 끝나면 주변 상가를 약탈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3시쯤 카슨 윌밍턴 애비뉴와 델마도 볼라바드에서는 스

트리트 테이크오버를 마친 이들이 인근 WSS 신발 가게로 침입해 신발을 훔쳐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일 문을 닫은 WSS 신발 가게 문을 강제로 열고 도둑질을 벌였다.

이보다 앞선 오전 2시 45분쯤 USC 남쪽 피게로아 스트리트와 슬라우슨 애비뉴에서도 여러 사람이 불법 도로 점거 후 인근 T모빌 매장에 침입했다. 이들은 T모빌 매장 유리창을 깨고 내부 물품을 훔친 뒤 달아났다.

26일 오전 1시 30분쯤에는 사우스 LA 샌추리 볼라바드와 센트럴 애비뉴에서도 불법 도로 점거 후 여러 명이 인근 오토존 매장으로 들어닥쳐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27일 오후에는 LA 다운타운에서 미니바이크를 탄 30여 명이 주요 교차로를 지나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차량 통행을 막고 미니바이크로 교차로를 빙빙 도는 등 혼잡을 유발했다.

김형재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미국, 미얀마 쿠데타군부 제재 왜 푸나…“희토류 확보 포석”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희토류 확보를 위해 이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최근 이뤄진 미얀마 친군부 기업인들에 대한 제재 해제도 결국 희토류 확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무역 전쟁 와중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위력을 실감한 미국으로선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얀마 반군 세력인 카친 독립군(KIA)과 협상해 중(重)희토류를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지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중에서도 채굴 난이도가 높아 희소성이 큰 중희토류는 전자기, 위성, 미사일 등 무기 제작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중국이 KIA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중희토류를 들여와 가공한 뒤 전 세계 중희토류 90%를 공급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중희토류의 절반 이상이 미얀마산이라고 한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지역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고 여러 제안을 접수했다”며 “미얀마 군부와 KIA 간 평화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 군정을 우회한 채 KIA와 직접 협력하는 방안 등을 제안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 모두 난관이 적지 않다. 미얀마 군부와 직접 접촉하는 건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소수 민족에 대한 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하루 아침에 용인하는 듯한 정책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미국은 2021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친군부 기업인 등 군부의 돈줄에 제재를 가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건 아니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미얀마 기업 3곳과 개인 4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해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희토류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미얀마 군부 정권과 관계 개선 가능성까진 부인할 수 없다



미얀마 카친주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이달 초 미국이 미얀마 군부에 40%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미얀마 군부는 “우리를 미얀마 정식 정부로 미국이 인정했다”고 감사 서한을 보냈다. 미국이 군부와 KIA를 중재하면 미얀마 정부 차원의 지원을 얻고 KIA 지역에서 생산된 희토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다.

KIA와 직접 협력하는 방안도 배제

할 수 없다. KIA 역시 미국과 손을 잡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KIA의 희토류 수출을 좌우하는 중국은 이를 쥐고 KIA에 간섭 수준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는 “KIA 등 미얀마 소수 무장세력은 중국에 착취당하는 데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가공 인프라를 갖춘 인도를 끌어 들인다고 해도 해당 문제는 여전하다. 로이터는 희토류 광산이 대부분 중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개입을 피해 희토류를 카친주의 외딴 산악지대에서 인도 및 그 너머로 이동시키려는 새로운 공급망은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미국의 미얀마 희토류 확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의 145%의 추가 관세 부과에 125% 관세와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로 대응했다. 미국 입장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치명타였다.

이에 미 국방부는 이달 미국 최대 희토류 채굴 업체인 ‘MP 머티리얼스’ 우선주 15%를 인수해 국내 생산과 공급 능력 확대에 공을 들였다. 로이터는 “희토류 공급 확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은평 기자

“한국산 선크림 1년치 미리 샀다”

관세발효 앞두고 ‘K 사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철강과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정책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가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패닉바잉(불안 심리에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관세 소식을 듣고 1년 치 아이라이너와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했다고 한다. NYT는 “이 여성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의 가격 인상에 대



뉴욕의 아시아 화장품 매장에서 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해 사재기하는 많은 ‘K-뷰티’ 소비자 중 하나”라고 전했다.

사재기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한 지난 4월부터 계속됐다. 이후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각각 미국과의 협상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한국과

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예고된 25%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한국산 수입품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톰 헨드필드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교수는 “미국인들이 관세에 앞서 행동에 나섰다. 수입 제품을 전보다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미국 소셜미디어(SNS)에선 관세 발효 전 살만한 제품을 추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틱톡에서 50만 팔로워를 가진 한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사재기한 한국 화장품 목록을 공유했다. 미 패션지 코스모폴리탄도 “관세가 부과되기 전 비축해야 하는 K-뷰티 제품”으로 자외선차단제,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했다.

장윤서 기자

컬럼비아대 이어 하버드대도 합의금 검토

하버드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최대 5억 달러를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협상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들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지난 4월부터 명문대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중단 등 강경 조치에 맞선 하버드대가 백기를 든 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정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엔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적 조건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다만 외부 감사인 지정엔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레드라인(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유대인 학생 보호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민권법 제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민권법 제6조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양측 간 협의는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 형식과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NYT는 “하버드대가 지난 4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소송과 이번 합의를 연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이유로 행정부의 압박을 받아 온 컬럼비아대 역시 지난주 행정부와 합의상을 통해 벌금 2억 달러를 납부하는 대신 매년 12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버드대가 반대 중인 외부 감사인 지정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맞춤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판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재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한류 융성 시대와 한국학교의 재도약”

한층 더 준비된 **한국학교** 수업에 배움의 열정을 맡겨 주세요!

2025~2026 WAKS 회원학교 www.waksusa.org / wakskorean@gmail.com / 301-233-9164

	학교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Address)	주소(City, State, Zip Code)	E-mail	후원금
지역 담당: 이숙진 443-977-9287 vice-md@waksusa.org							\$2000 이상 후원
MARYLAND	가든	서재영	540-808-3066	8665 Old Annapolis Rd.	Columbia, MD 20145	learnkorean.garden@gmail.com	왁스이사회
	벨엘	오승연	410-707-3409	3165 St. Johns Ln.	Ellicott City, MD 21042	bethelkoreanschool@bethelchurch.org	나승희이사 (한인나눔운동대표)
	볼티모어 새싹	김양희	443-653-6422	1600 W Seminary Ave	Lutherville, MD 21093	sskoreanschool@gmail.com	\$1500 이상 후원
	볼티모어 에덴	이숙진	443-977-9287	56 Stevenson Ln	Baltimore, MD 21212	poby2778@gmail.com	최선혜어
	솔피	김정민	410-507-6362	5801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chastar123@gmail.com	\$1000 이상 후원
	시온	엄영진	267-210-9131	9947 Harford Rd.	Baltimore, MD 21234	hankukzion@gmail.com	강병구 교육관
	영광(휴교)						문일룡 자문위원
	예수사람	권진익	267-210-5948	1716 Goodview Rd.	Parkville, MD 21234	jekinchrist@gmail.com	송재성 7대 이사장(재미 대한 장애인 체육회)
MARYLAND	종성한	윤남숙	443-534-5787	375 Benfield rd.	Severna Park, MD 21146	namyoon1@gmail.com	유기천 총장기념사업회
	지역 담당: 김만선 667-280-0085 finance@waksusa.org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길벗	김진희	443-690-6976	7672 WB & A Rd.	Severna Park, MD 21144	gilbutchurchschool@gmail.com	Care People Home (대표 홍은경)
	메릴랜드 제일	조영우	301-467-5880	8430 Glenmar Rd	Ellicott City, MD 21043	fkpcmaryland@gmail.com	\$500 이상 후원
	빌립보	김주영	410-541-6005	7422 Race Rd	Hanover, MD 21076	philippikoreanschool@gmail.com	강변사우나
	새소망	우문주	301-256-5335	6301Stevens Forest Rd.	Columbia, MD 21046	pastorwoo@newhope.us	변재은(JUB 한국문화예술센터)
	생명(휴교)						새소망 한국학교
	엘리콧시티	조명옥	443-710-6023	8971 Chapel Ave.	Ellicott City, MD 21043	mongok113@gmail.com	유양희이사
MARYLAND	에일	정우용	443-808-9778	4862 Montgomery Rd.	Ellicott City, MD 21043	ephriamjung@hotmail.com	윤송숙(WAKS 12,13대 홍보)
	한마음(휴교)						이내원(WAKS 1,2대 이사장)
	한미장애인	김신기	240-535-5770	3448 Ellicott Center Dr. #104	Ellicott City, MD 21043	kadpa.usa@gmail.com	이청영(워싱턴한국문화예술재단)
	센터니얼 한국학교	김만선	667-280-0085	3452 orange grove ct.	Ellicott City, MD 21043	cks@waksusa.org	임정옥변호사
	지역 담당: 강보령 443-765-21021 pr1@waksusa.org						장두석(아리랑 USA 공동체회장)
	소망	강보령	443-765-2102	9050 Baltimore Street.	Savage, MD 20763	bkang7016@gmail.com	주예수무궁화 한국학교
	기쁨의	신명조	410-340-9046	4875 Green Bridge Rd.	Dayton, MD 21036	kippoom.church@gmail.com	한미교육재단 김영미이사장
	성 김 안드레아	정윤희	301-675-7319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sak@waksusa.org	형제트로피
MARYLAND	예사랑	박서인	571-685-3493	800 Hurley Ave	Rockville, MD 20850	kpckoreanschool@gmail.com	헬로쉽MD 한국학교
	워싱턴 통합(MD)	박성희	301-385-3498	13714 Mills Farm Rd	Rockville, MD 20850	mkjoy1@gmail.com	Hangry Joe's Franchising LLC
	지구촌	최유나	470-505-3904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withyn012@gmail.com	\$300 이상 후원
	한사랑(MD)	김병은	410-852-0999	1624 Millersville Rd	Millersville, MD 21108	bekim111@yahoo.com	뉴세니칼렌다
	믿음제일	김로이스	301-332-2000	3200 Randolph Rd.	Wheaton, MD 20902	firstfaith3200@gmail.com	동지 레스토랑
	지역 담당: 전효정 240-338-7181 pr2@waksusa.org						벤티 한국학교
	베데스다연합	김성현	703-677-2329	7009 Wilson Lane	Bethesda, MD 20817	ukpcteacher@gmail.com	강영우장학재단 석은옥이사장
	베데스다	허준	703-675-8697	5144 Massachusetts Ave.	Bethesda, MD 20816	Bethesdakls@gmail.com	성 김 안드레아 한국학교
MARYLAND	세미한	이일복	301-368-3536	6325 Griffith Rd.	Laytonsville, MD 20882	semehahn@hotmail.com	장원반점
	좋은 나무(휴교)						전효정(치킨포차)
	킹세종	김광년	513-227-1328	20101 Woodfield Rd.	Gaithersburg, MD 20882	peterkim75@yahoo.com	중앙 한국학교
	헬로쉽	정광미	301-233-9164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fkoreanschool@gmail.com	하상 한국학교
	워싱턴 산돌	조재경	859-312-4937	3604 Metzertott Rd	College Park, MD 20740	ezra5978@gmail.com	\$200 이상 후원
	월돌프 갈보리(휴교)						궁전레스토랑
	종이마을	김명희	240-252-9596	1011 Maple Ave.	Rockville, MD 20851	klpcschool@naks.org	길벗 한국학교
	베다니	윤연미	240-481-8065	1201 Quince Orchard Blvd.	Gaithersburg, MD 20878	ymkang89@yahoo.com	김대영 WAKS 전협회장
VIRGINIA	지역 담당: 이민이 703-798-0737 finance-alt@waksusa.org						김종준(스마트 보험)
	구세군	임희란	919-703-3786	4915 Ox Rd.	Fairfax, VA 22030	Heeran.Lim@uss.salvationarmy.org	꿈사랑 한국학교
	메시아	김중순	703-473-9896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jongsnkim@gmail.com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무지개	최혜정	703-753-7225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estheran71@gmail.com	미련곰탕이
	서울	이지은	703-342-2093	6428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spckoreanschool@gmail.com	박종욱(스마트 냉동)
	워싱턴 글고운	배지은	571-581-4404	9524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Koreanschool@cornerstonefairfax.com	버지니아 헬로쉽 한국학교
	워싱턴 다니엘	김위만	703-624-5264	3695 Persimmon Circle	Fairfax, VA 22031	wimankim@yahoo.com	베데스다 한국학교
	필그림	윤은희	657-217-7454	4925 Twinbrook Rd.	Burk, VA 22015	ohnyou@gmail.com	볼티모어 새싹 한국학교
VIRGINIA	초대서밋	이정림	703-362-4294	4528 Shirley Gate Rd	Fairfax, VA 22030	junggrimlee@naks.org	볼티모어 에덴 한국학교
	참람(휴교)						빌립보 한국학교
	지역 담당: 김정선 571-425-2698 clerk-alt@waksusa.org						선한목자 한국학교
	나라사랑	이영순	703-732-0114	2937 Strathmeade St.	Falls Church, VA 22042	tsyps3@gmail.com	소망 한국학교
	로렐	김윤희	703-678-1633	5265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69younhee@gmail.com	솔피 한국학교
	맥클린	이은애	571-235-8997	7144 Old Dominion Dr.	McLean, VA 22101	autumn379@gmail.com	신촌가든
	버지니아	호수경	703-402-1771	6021 Franconia Rd.	Alexandria, VA 22310	sookyeeongho@hotmail.com	엘리콧시티 한국학교
	선한목자	조윤희	703-851-7297	5401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elyclub2@gmail.com	엘린문 한국학교
VIRGINIA	와싱턴 세종	김지은	571-268-2428	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102	after37@naver.com	영생 한국학교
	올 네이션스	김문정	571-425-2698	8526 Amanda Place	Vienna, VA 22180	cfansejong@gmail.com	이문형이사
	새언약	이승민	703-268-3211	10018 Burke Lake Rd	Burke, VA 22015	lovedanlee@gmail.com	정세경 (한강 매니저)
	소리	김민경	269-312-4961	9800 Burke Lake RD,	Woodbridge, VA 22025	ohl077@gmail.com	토마스윤 치과
	워싱턴 통합 VA	이혜경	443-714-9722	12811Gate Rail Rd.	Clarksburg, MD 22871	hyekyungyi@naks.org	황오숙 WAKS 전협회장
	지역 담당: 김정선 571-217-8941 clerk@waksusa.org						Shin's Auto Service
	꿈사랑	박희진	703-881-8650	5649 Mt. Gilead Rd.	Centreville, VA 20120	visionloveks@gmail.com	\$150 이상 후원
	열린문	이영복	240-751-2496/703-653-4265	3001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yolee247@hotmail.com	김남수 회계사
VIRGINIA	영생	박종주	703-628-3674	15015 Bradock Rd.	Centreville, VA 20120	jongjukim41@gmail.com	워싱턴문인회
	워싱턴 연합	황성환	703-815-2413	14637 Lee Highway #201	Centreville, VA 20121	united1923@yahoo.com	\$100 이상 후원
	워싱턴 임마누엘	최봉희	301-787-3300	23219 Evergreen Mills Rd.	Leesburg, VA 20175	bongchoe@gmail.com	가든 한국학교
	워싱턴 한마음(휴교)						고귀정희
	하상	이정렬	571-215-0479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marialee5228@yahoo.com	김남구 킴소토
	제일	김은주	703-286-9755	2730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firstkoreanls@gmail.com	김명희 WAKS 전협회장
	워싱턴순복음제일	박정현	703-801-7757	6401 Lincolnia rd	Alexandria, VA 22312	jeonghp4rk@gmail.com	김선화 WAKS 전협회장
	버지니아 헬로쉽	나홍태	703-615-0031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vafellowshipschool@gmail.com	라블랑제리 뽕집
VIRGINIA	중앙	한상준	804-476-8257	15451 Lee Highway	Centreville, VA 20121	info@tckschool.org	로렐 한국학교
	지역 담당: 김수미 804-370-4717 vice-sva@waksusa.org						류상균(베스트 카이로프로텍)
	늘푸른	최정자	804-617-2562	2990 Broad Rock Blvd	Richmond, VA 23224	Evergreens2016@gmail.com	마호선
	버지니아 비치	김진경	757-675-7241	610 Jack Rabbit Rd #9	VA Beach, VA 23451	jinghalter@gmail.com	메시아 한국학교
	서쪽 민들레	홍성욱	757-632-0691	5701 Lee Farm Lane	Suffolk, VA 23435	seonghong@vaumc.org	믿음제일 한국학교
	에델(휴교)						배은미
	주예수 무궁화	노승환	804-347-3535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Ljkckoreanschool@gmail.com	새언약 한국학교
	중앙 비전	김은	804-721-3852	2715 Swineford Rd.	Richmond, VA 23237	praiseun@hotmail.com	올 네이션스 한국학교
VA & WV	페닌슐라 하나로	이영미	757-598-8961	1 Avenue of the art	Newport News, VA 23606	hanaroschool@gmail.com	워싱턴 연합 한국학교
	지역 담당: 박희진 703-881-8650 general@waksusa.org						이승민 WAKS 전협회장
	린치버그	신아영	434-944-7802	701 Thomas Rd.	Lynchburg, VA 24502	ayoungcindy@gmail.com	종이마을 한국학교
	살롯츠빌 문화	마인수	434-806-7387	645 Kirtley Ln	Charlottesville, VA 22903	golferma@gmail.com	한광수 WAKS 전협회장
	세난도어	한상호	703-609-1922	109 Finch Court	Stephens City, VA 22655	mikehan94@hotmail.com	한연성 WAKS 전협회장
	웨스트버지니아	송연경	317-478-7836	149 Meadow Ridge Townhomes	Morgantown, VA 26505	songyk331@gmail.com	황보철 WAKS 전협회장
	디씨갯스이미지	김은희	703-338-8082	14100 Sullyfield Cr #700	Chantilly, VA 20105	dcgimkoreanschool@gmail.com	H Mart 센터빌점
	WTS 복음교회	정병완	571-379-275	11240 Waples Mill Rd. #402	Fairfax, VA 22030	bwcheong@wtsva.edu	KI GRAPHICS INC

2025~2026 가을 교사연수회 주제: “한류 융성시대와 한국학교의 재도약”

가을학기 교사 연수회 일정

- **일정: 8월 16일 / 11월 ~ 15일 교사 기초 다지기**
일시: 2025년 8월 11일~15일(월 - 금)
오후 8시 ~ 9시 10분
2025년 8월 16일(토요일)
오전 9시 ~ 2시 20분
- 8월 16일 일정 :
▶ 9:00 AM ~ 2:20 PM (9:00 ~ 9:10 AM 온라인 교실 입장)
▶ 9:10 AM ~ 9:40 AM 개회식 (유튜브 라이브)
▶ 9:40 AM ~ 10:50 AM 주제강의(ZOOM)-추우알림
▶ 11:00 AM ~ 12:10 PM 분반강의 1
▶ 1:10 PM ~ 2:20 PM 분반강의 2
- 연수회 신청 링크: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 온라인등록하기
<https://forms.gle/NRjiZK6HzosuB5AB7>

교사의 기초 다지기

- **일정: 8월 11일 ~ 15일 오후 8시 ~ 9시 10분**

8월 11일 (월)	AI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어 수업의 실제 김보현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8월 12일 (화)	문화중개자 교사되기: 한류시대의 페다고지와 프락시스 서정원 - 성균관대학교
8월 13일 (수)	수업을 쉽게, 자료를 예쁘게, 협업을 효율적으로-디지털도구 완전회복 박승원 - 나란한국학교
8월 14일 (목)	잘 가르치고 있는 한국학교 선생님을 더 빛나게 하는 예뮤티크 1 - Vrew로 기존 PPT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정인재 - 서울창림초등학교
8월 15일 (금)	잘 가르치고 있는 한국학교 선생님을 더 빛나게 하는 예뮤티크 2 - QuizN을 활용해 퀴즈 만들기 정인재 - 서울창림초등학교

• 일정: 8월 16일(토) 주제강의 및 분반강의

시간	한국어단계	강의 제목	강사	소속
9am~9:40am		개회식 (온라인 교실 입장: 9:00am~9:10am / 개회식: 9:10am~9:40am)		
9:40am~10:40am		주제강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룬 위대한 사랑의 역사	이진영	나우프로덕트 대표
분반강의1 11am~12:10pm	전체	민주적 학급 경영	유철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전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수업에 활기 불기	김자선	우리/세종한국학교
	전체	서 제빌 Inside Out: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수업	이다복	중앙 한국학교
	유치, 입문	만 4,5세 왁스 유아유치 교재와 병용 유아유치교재 활용 수업	박희진	꿈사랑 한국학교
분반강의2 1:10pm~2:20pm	기초, 초급	놀이처럼 배우는 한글! 시와 함께하는 특별한 한글시간	홍창기	소중한글 H2K 대표
	중급	그림 묘사 활동으로 말문을 여는 초급 한국어 수업 - CBI 교수법을 활용한 시범수업	민옥희	몬트레이캘리포니아대학교/국립외국어대학
	영어권 모토단계	놀이처럼 배우는 한국어 중급	유수정	센디에고 김보리 한국학교
		주말 한국학교에서의 교학년을 위한 자리를	안진숙	오래군통한국학교

◆ 문의: 정광미 회장 ☎ 301-233-9164, E-mail : wakskorean@gmail.com

주최: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
회장 정광미 / 이사장 한연성
www.waksusa.org

후원: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 한국 교육원



재외동포청

“산재사망 땀 주가 폭락” 생중계 경고

이 대통령, 국무회의 첫 생중계 지시
포스코이앤씨 올 네번째 산재사망에
“사망사고 반복은 미필적 고의살인”
징벌적 배상 등 강력 처벌 예고도
일각선 “상법 등 기업 반발 겨냥”

“살인” “주가 폭락” “징벌적 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책임을 물으며 나열한 표현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즉석 지시로 KTV와 유튜브를 통해 역대 최초 생중계됐고, 거론된 기업은 7시간 만에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실제론 네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진 걸 지목한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선 지난 1월과 4월에도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1시간30분가량 산재 대책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진단한 산재 원인은 “돈”(기업의 비용 절감)이었고, 해법도 “돈”(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 지시로 1시간20여 분 동안 K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적 불이익)이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 놔다.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꼭 뿔 해야 된다는 온갖 게 다 있는데 안 지켜서 사고가 난다”며 “안 지키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돈이 드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대표에게 20년이 구형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사망자 1인당 형량) 교통사고 처리보다 별로 세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다”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까운데 ‘징벌 배상’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도 언급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더 엄격히 반영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면 아예 그걸(ESG 평가) 여러 차례 공시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지사 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재계에선 ‘기업 군기 잡기’로 바라봤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이 불만을 제기한 직후라는 시점에 주목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 자신들이 지목될까 봐 두려워하는 분위기”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5시쯤 인천 송도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현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했다.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

지도록 했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호관세 유예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고 한·미 통상 협상이 난항이지만 관련 이슈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산재 관련 발언이 통상 협상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도 전략적 판단”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필요하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 그러더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성민·정은혜 기자

‘현장’ 찾는 대통령에... 여권 “돌아온 사이다” 야당 “전형적 포퓰리즘”

SPC 방문 등 현장일정 자주 지시
해결사 행보에 환호·우려 엇갈려
전문가들 “관세 등 큰 과제 집중을”

“불시 단속에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단속 강화를 지시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도 “현장 방문 일정을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자주 한다고 한다.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도 이 대통령이 이달 중순부터 참모진에 “내가 산업재해 현장을 갈 테니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요청한 결과다.

참모들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SPC 삼립 공장과 지난 14일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2곳을 후보군으로 올렸고, 이 대통령이 SPC를 선택했다.

SPC 공장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 삼립 대표이사에게 근무 형태와 휴게 시간을 구체적으로 물은 뒤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SPC 그룹은 27일 이 지적을 그대로 수용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에 대한 ‘지게

차 가혹 행위’가 알려지자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1시간 뒤 SNS에 관련 기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 침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적었다. 이들 뒤인 26일 김영록 전남 지사는 피해 노동자를 직접 만나 위로한 뒤 “안정적인 새 직장을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해결사를 자처하는 이 대통령을 두고 여권에선 “사이다 본능이 되살아났다”(진명계 의원)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경기지사 시절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취임한 달 이후 서서히 현장 일정을 줄여나가는 역대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7월 둘째 주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진영 외부의 시선은 썩 곱지 않은 않다. 이준환(정치학) 인천대 교수는 “민간 영역까지 일일이 나서면 자칫 대통령이 나설 때만 부처가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은 관세 문제 해결이나 미래의 국부(國富) 창출 같은 거시적인 과제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장서운 기자

더운 날씨에 시원한 세라젬 Summer Special 농치지 마세요! CERAGEM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우아하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설계된 “파우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기술력으로
최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노동절 특선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



뉴욕 당일 투어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시티 투어
8/30(토) \$199 (점심식사 포함)



미국 사이드 숙박 (여권 불필요) 천섬 & 미국 나이아가라 2박3일 8/30(토)~9/1(월) \$650



캐나다 사이드 숙박 캐나다 나이아가라 1박2일 8/31(일)~9/1(월) \$425



한스 미동부 로컬 투어

미리 예약하세요!

대형버스 추석연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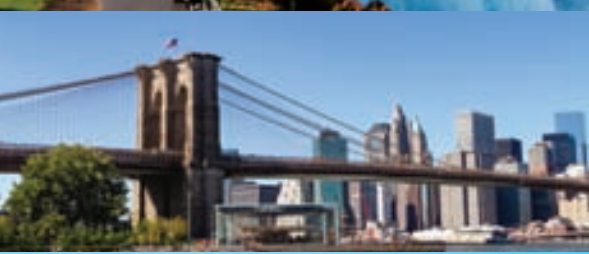
캐나다 나이아가라, 뉴욕 2박3일 \$650
10/6(월)~10/8(수) 출발 확정

대형버스

캐나다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9/3(수), 9/24(수) 출발 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1,350
8/18, 9/8, 9/29 출발가능 8명이상 출발가능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중부 & 동부 파킹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6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400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한스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08/01(금)~08/15(금)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마감
08/01(금)~08/13(수) 아프리카	마감
08/04(월)~0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마감
08/13(수)~08/19(화) 알래스카	마감
09/14(일)~09/24(수) 서유럽3개국	마감
10/09(목)~10/18(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마감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마감
09/30(화)~10/13(월) 13박14일	마감임박
동유럽 & 크로아티아,돌로미티 \$4,890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09/30(화)~10/07(화) 7박8일	마감임박
동유럽(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2,890	애나 김
10/06(월)~10/13(월) 7박8일	
크로아티아 \$2,990	
10/15(수)~10/25(토) 10박11일 딜럭스 리무진 버스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11박12일	
스페인 & 포르투갈 \$3,690	세라 정
10/19(일)~10/31(금) 12박13일	
그리스 & 튀르키예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9박10일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2,890	

11/07(금)~11/19(수) 12박13일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5,995	재키 조
11/26(수)~11/30(일) 4박5일	
팬스기빙 코스타리카 항공포함 \$2,090	세라 정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0(토)~01/19(월) 9박10일 SMALL GROUP TOUR	
오만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NEW \$5,190	조앤 한
01/16(목)~01/24(토) 8박9일 (볼티모어 출발)	
바하마 크루즈 인사이드 \$1,240부터 오션뷰 \$1,440부터	인솔자
01/29(목)~02/08(일) 10박11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3,590	재키 조
01/29(목)~02/10(화) 12박13일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4,850	
02/09(월)~02/14(토) 5박6일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항공포함 \$2,190	세라 정
02/09(월)~02/21(토) 12박13일	
남인도+스리랑카 \$5,150	조앤 한
02/14(토)~02/21(토) 7박8일	
스리랑카 문화탐방 \$2,980	
02/17(화)~02/26(목) 9박10일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4,190	데이빗 한
02/23(월)~03/22(일) 27박28일	
남미 일주 \$19,550	
02/23(월)~03/08(일) 14박15일	재키 조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9,900	

03/7(토)~03/15(일) 8박9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5,490	재키 조
03/14(토)~03/22(일) 8박9일	
페루 일주 \$3,590	
03/23(월)~04/01(수) 9박10일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3,690	조앤 한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12박13일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5,995	재키 조
04/11(토)~04/18(토) 7박8일 딜럭스 리무진 버스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2,590	재키 조
04/20(월)~04/28(화) 8박9일	
중국 실크로드 \$3,490	조앤 한
4/9(목)~4/17(금) 8박9일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봄 특선! 베네룩스 3국 \$3,890	세라 정
04/20(월)~05/01(금) 11박12일	
스페인 & 포르투갈 \$3,690	애나 김
04/26(일)~05/05(화) 9박10일	
시실리 섬 + 몰타 \$4,950	재키 조
05/04(월)~05/14(목) 10박11일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서유럽3개국 \$3,590	세라 정
05/06(수)~05/18(월) 12박13일	
그리스 & 터키 \$3,690	조앤 한
06/01(일)~06/13(토) 12박13일	
코카서스 3국 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4,490	조앤 한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항공 불포함 모든 옵션 포함!!

2025년 가을 10/15(수)~10/25(토) 내륙일주 7박8일 \$2,390 전국일주(제주포함) 10박11일 \$2,990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2026년 봄 4/11(토)~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럭스 7박8일 \$2,590

팬스기빙 4박5일 코스타리카

파바콘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빠스생태공원
11/26(수)~11/30(일)
항공포함 \$2,090 인솔자:세라정

찰스톤/올랜도/마이애미/낫소 바하마 크루즈

8박9일 2026년 1/16(금)~1/24(토)
인사이드 \$1,240부터/오션뷰 \$1,440부터
볼티모어 출발/왕복트랜스퍼/포함/인솔자 동행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정관 ‘미국→영국→미국’ 러트닉 동선 쫓아 막판 협상전

(워싱턴DC)

(스코틀랜드)

(워싱턴DC)

김정관·여한구, 미 협상팀 밀착마크
정부 “러트닉은 가장 중요한 키맨
성의 보이면 타결 가능성 커질 것”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
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대표단의
‘따라붙기’ 외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각
22일과 23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
었다. 두 사람은 24일 워싱턴DC 상무
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
관과 협상했고, 25일에도 그의 뉴욕 사
저를 찾아갔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
의 협상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에 올려지기까지 일본 협상단과
마지막 문구를 조율하고, 실제 트럼프
와 만났을 때의 행동까지 리허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날 유럽연합
(EU)과의 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났고, 러트닉 장관도 수행을 위해 스
코틀랜드로 향했다.

그러자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스코
틀랜드행 비행기를 잡아탔고, 두 사람
은 27일(현지시간) 저녁 러트닉 장관
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나 스코틀랜드에서
협상을 이어갔다.

EU와의 협상 타결 후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스톡홀름으로
이동했고, 러트닉 장관은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28일 러트닉과 동선을 맞췄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에 맞춰
가며 그만큼 전력을 쏟고 있다는 게 정
부 측 설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어
찌 됐든 러트닉 장관이 이번 무역 협상
에서 가장 중요한 키맨인 것은 분명하
다”며 “다각도로 접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의를 보일 때 그만큼
타결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느냐”고 중
앙일보에 말했다.

러트닉 장관도 한국의 절박한 상황
을 잘 아는 듯했다. 그는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 인사들이 저녁식사
후 나와 그리어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
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들이 얼
마나 협상 타결을 정말로 원하는지 생
각해 보라”고 말했다. 미소를 띤 모습
의 러트닉 장관은 “지금(은 트럼프) 대
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모든 카드
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관세율을 결
정하고, 각국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
지를 결정한다”며 “이번 주 내에 확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스코틀랜드 미 재무장관과 1대
1로 면담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9일 미국으로 향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준비 중인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



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
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
다”고 각오를 밝혔다. 구 부총리와 베
센트 장관의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재
가’에 이르기 직전 단계의 최종 조율 과
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향후 교역 상
대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의 최저 세율

을 15%로 거듭 못 박았다. 8월 1일로 예
고된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합의점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정
부가 받아낼 수 있는 최선의 마지노선
이 15%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 중 가진 취재진과
의 대화에서 “상호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며 “나머지 국가들은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다. 아마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0
개가 넘는 개별 교역국과의 협상을 모
두 성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률
적으로 15~2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거란 의미다.

김형구 기자

이재용도 미국행 관세시한 D-2 민·관 총력전

이, 반도체 투자 등 지원 나설 듯
구윤철은 내일 베센트와 담판

8월 1일로 예정된 미국의 25% 상호관
세 부과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이 29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미국과의 관
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
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 열리는 스코틀랜드 미 재
무장관과의 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
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
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도 이
르면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을 한다. 김 장관은 앞서 미국 워싱

턴과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러트
닉 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재용 회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히든카드도 등판하는 것으로 관측된
다. 이번 미국행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
를 풀 후 선택한 첫 해외 일정이다. 지
난 24일엔 비공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 이 회장이 미국 내 반도
체 투자 확대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거
론된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
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현재에 37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테슬라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인 22
조8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
약을 맺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27일 유럽연합
(EU) 관세를 15%로 결정하면서도 반
도체 장비에는 ‘상호 무관세’ 합의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 전략적 품목은 따로
챙기고 있다. 한국은 삼성의 투자를 지
렛대로, 미국 측에 8월 초 발효가 예고

된 반도체 품목관세 인하 또는 제외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김동관
회장도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미국으
로 와 협상단에 합류했다. 미국 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정부는 미국에 제안한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 부활은 트럼
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만큼 제안이 상
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며 “협상
이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협상에서 남은 관건 중 하나는
대미 투자 규모와 쌀과 소고기 등 농산
물 시장 개방 범위다. 미국과 관세 협상
을 마무리한 영국·일본 등은 관세를 낮
추기 위한 협상카드로 모두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내놨다. 당초 쌀 등 농산물
개방을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정했던 정부도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
개방을 다시 올려놨다.

특히 소고기 시장 개방은 트럼프 대
통령 등 미국 정계에서의 개방 압박이
거센 사안이다. 한·미의원연맹 소속으
로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회의원들은 만
난 자리에서 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경우는 없고,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전달
받았다”며 “이 밖에 사과와 같은 과일
검역 제한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30개
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
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뿐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트
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008년 이후
16년 동안 막혔던 소고기 수출이 완전
히 풀렸다는 전리품이 협상 카드로 잘
먹힐 수 있다”고 말했다.

소고기의 경우 쌀과 달리 나머지 국
가와의 통상 이슈가 없다는 것도 장
점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중국·호주·

태국·베트남 등 5개국의 쌀을 미리 합
의한 비중에 따라 저율관세할당물량
(TRQ)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수
입 물량을 늘리려면 중국 등 나머지 국
가들과 합의가 필요하다. 협상 과정에
서 다른 국가들도 쌀 수입 확대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소고기의 경우 국내
정치권의 반발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민주당 내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
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미·중 패권 갈등에서 중국 측
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일정 부분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도 전해졌
다. 정부는 고민이 크다. 통상당국 핵심
관계자는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과 미국이 진행하는 중국의 첨단 기술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거세다”며
“미국은 한국이 중국으로의 지식과 기
술 유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을 경유한 중국 제품의 해외 수출
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했
다. 한국은 기술 안보 강화 등의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효성·심서현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노란봉투법 통과 땐 “해외에 공장 세워도 국내서 파업 가능”

〈분회의〉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면 쟁의 대상
하청과 교섭하는 ‘사용자’ 규정 모호
소송 늘어 사회적 부담 커질 수도

‘노란봉투법’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남은 관문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전문가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짚었다

①원청이 연간 수백 번 교섭할 수도 있다. 맞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노조법 2조 2호)이 새로 추가됐다. 이로써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영계는 “자동차·조선·철강 산업처럼 수십 개의 하청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다단계 산업 구조에서는, 모든 하청

노란봉투법 Q&A

Q 원청 사용자 연간 하청과 수백 번 교섭할 수도?

A 맞다. ‘실질적 지배력’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청 가능

Q 해외 투자, 공장 건설에도 파업 가능해진다?

A 맞다. ‘근로조건’에 영향 준다면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쟁의행위 가능한 조항 신설

Q 폭력 시위 불법파업에 면책권?

A 아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연대책임 원칙은 유지, 다만 손해 청구 단계에서 개인 책임비율을 조정·감면할 수 있도록 함. 불법파업에 있어서 조합원 개인의 손해책임을 줄여 경영계는 불법파업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게 될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만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부칙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안에서 빠졌다. 노사 혼란을 고려해 1년으로 늘린 유예기간도 6개월로 줄었다.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결국 ‘누가 사용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회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전문가 연구회를 구성해 현장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입법 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②해외 공장 결정에도 파업이 가능할까. 맞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 결정이나 해외 공장 건설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존 법 조항에서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직접적인 항목만 쟁의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쟁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 박삼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해외 공장을 지어 국내 생산 물량이 줄었다면 그로 인해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파업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③불법파업에 면책권 주나. 아니다. 권혁 교수는 “불법파업 책임을 면제해 주기보다는 개인이 책임이 있는 만큼만 손해를 묻자는 게 취지”라고 했다.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목적이거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조합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이뤄졌고, 이를 제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노란봉투법이 출발했다. 이와 관련한 3조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수정이 이뤄졌다. 2023년 현대자동차 판례를 반영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때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 여섯 가지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세종=김연주 기자

경제 8단체 “경제 상황 엄중한데…우려 넘어 참담”

노란봉투법 속도전에 재검토 요구
“상법 추가개정 땐 성장동력 저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을 두고 재계가 재검토를 호소했다. 경제 8단체는 29일 ‘내우외환 한국

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경

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사 총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공포됐으며, 일주일도 안된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됐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

의를 조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 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을 잃는 것이고, 경제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민 기자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10억…업계 “코스피 3000도 힘들 것”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금융투자업계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본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을 해왔는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은 그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치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회사의 지분율이 1~4%(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 따라 차이) 이상이거나 지분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10억원만 넘으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다. 이소영 의원은 “주식시장에 대한선 갑작스러운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에 대한선 침묵한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선 60%씩 비용을 공제해 실질 세율이 20%대밖에 되지 않는 점은 논하지 않으면서 주식 관련 세금을 늘리고 배당소득 인센티브 정책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옮겨갈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 압력이 강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국내 자산운용사 임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코스피 5000은커녕 3000도 힘들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확보한 정책 기대감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임원 역시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선 연말만 되면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온다”며 “정부 기조가 장기 투자, 증시 활성화인데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도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에 부정적인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변화	
개편 시점	대주주 요건*
2000년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2013년	지분율 2%, 50억원 이상
2016년	지분율 1%, 25억원 이상
2018년	지분율 1%, 15억원 이상
2020년	지분율 1%, 10억원 이상
2024년	지분율 1%, 50억원 이상
2025년(예정)	지분율 1%, 10억원 이상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가증권 기준
대표적 요인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22%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25%로 인상했는데 2022

년 윤석열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24%로 내렸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의 세후순이익이 감소해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 주가와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자 다음 날 코스피가 장중 3% 가까이 빠지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의원 사이에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종합소득으로 묶어 계산할 때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부자 감세’란 민주당 내부 비판에 부닥쳤다. 이병준 기자

It's Okay,
with
Jesus!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명... 오빠 장모 집엔 이우환 그림

(김건희 오빠 김진우씨)

특검, 반클리프 매장서 감정 받아
계엄 이후 진품 바뀌치기 의혹도
그림도 수십억대, 뇌물 가능성 수사
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소환

지난 25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오빠 김진우(55)씨의 장모 한모씨 집에서 압수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동포 만찬 행사에서 착용했다. 당시 진품 시가로 6200만원 상당이어서 국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매장에서 감정받은 결과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과도 결론났다. 진품에 있어야 할 고유 일련번호도 없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목걸이가 압수되자 “윤 전 대통령 당선 이전에 구매한 모조품



김건희 오빠 김진우(55)씨가 장모집에서 발견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추정품 발견에 대해 28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웃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이찬규 기자

이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표법상 짝퉁 구매자는 처벌하지 못한다. 특검팀은 압수품이 모조품으로 드러났지만 3년 동안 이른바 ‘진품 바뀌치기’, 즉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오빠 김씨가 진품을 다른 곳에 숨기고, 모조품을 장모인 한씨 집에

뒀다는 의심이다. 특검팀은 김씨 인척들로부터 “12·3 비상계엄 이후 김씨가 목걸이 등을 한씨 집으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 특검팀에 출석한 김씨는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목걸이를 장모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은 2022년 8월 처음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품목당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이나 취임 이후 목걸이를 신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현지에서 빌리고 한 거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김 여사 측은 검찰 서면진술서에 “모조품이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목걸이는 다른 청탁 의혹 사건으로 이어진다.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사별백 2개 등을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건네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측 현안 사업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나토 회의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가며 짝퉁을 빌려 차고 나갔다는 주장에 기가 막히다”고 논평했다. 그는 “짓밟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킨 행태까지 포함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씨 집에서는 수심억원대에 거래되는 이우환 화백의 ‘프롬 포인트(From Point)’ 연작 1점과 진품 감정서도 압수됐다. 이 화백은 ‘프롬 포인트’ 연작을 1970년대 초부터 발표해 왔다. 2012년엔 1점이 경매에서 24억원에 낙찰됐고, 2021년에는 22억원에 팔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국고손실 혐의에 더해 뇌물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이 그림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품이 한씨 집에 보관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김 여사 가족 측은 이 작품이 김 여사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찬규 기자

아들에 총 쏜 60대, 작년부터 이불에 격발 연습까지 했다

늑장진입 경찰, 입구 CCTV 안 봐

아들을 사제 산탄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62)가 격발·폭발 실험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A씨는 가족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해 8월부터 범

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다른 범죄로 구속됐을 때 아내와 혐의이혼을 했으나 동거를 계속하다가 2015년 아들 결혼 후 혼자 살게 됐다. 생활비와 공과금·통신비 등 경제적 지원은 계속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

터 가족을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영상을 참고해 파이프와 손잡이를 구입하는 등 사제총기 제작에 들어갔다. 이후 집안에서 탄환의 장약을 뺀 채 이불에 격발 실험을 하고, 방화를 위해 폭발물 인화 실험까지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일 아들을 쏜 뒤 집밖으로 도망치는 외국인 가정교사를 복도까지 쫓아가 두 발을 쏜 등 모두 살해하려했

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경찰은 최초 112신고로부터 약 72분 뒤인 오후 10시43분에야 경찰특공대가 늑장 진입한 데 대해 “도주한 줄 모른 채 A씨가 안에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사이 내부 구조를 파악해 작전 계획을 세웠고, 매뉴얼에도 시가지 작전은 현장을 확인하고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입구·엘리베이터 등 CCTV 확인을 빠뜨렸다.

현장지휘관인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경정)이 상황이 끝난 뒤 도착한 데 대해선 “현장에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10시 29분에 전화가 와서 바로 현장에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총동 조치 미흡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류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죄 등 혐의로 A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한다. 임성빈·김창용 기자

생산가능인구 70% 깨졌다, 거주 외국인 200만명 돌파

(15~64세 3626만명)

통계청 2024 인구주택총조사

생산연령인구(15~64세) 70%대 벽이 무너졌다. 65세 이상 인구는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웃돌며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지표도 악화했다.

29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80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1000명(0.1%)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0.2%)보다 줄면서 사실상 정체하는 흐름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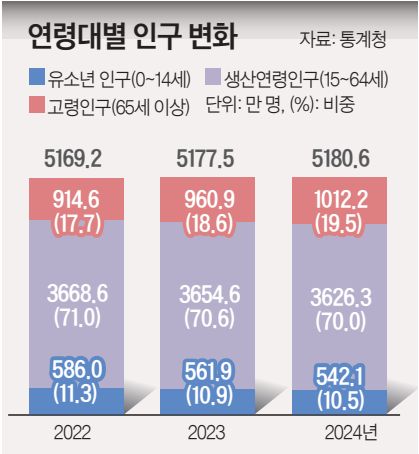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3000명으로 28만3000명 줄었다. 총인구 대비 비중은 반올림하면 70%, 소수점까지 계산하면 69.9984%로 사상 처음 70%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의 적신호다. 노동 인구 부족으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져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542만1000명으로 19만9000명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1만3000명 증가한 1012만2000명을 기록했다. 고령 인구 비중은 1년새 18.6%에서 19.5%로 상승했다.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

이라는 뜻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중위 연령(모든 사람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중앙에 선 사람의 나이)은 전년보다 0.6세 많은 46.2세로 나타났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7.9명으로 5년 새 7.1명 늘었다.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76만3000명(96.1%), 외국인은 204만3000명(3.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첫 200만 명 돌파다. 전년과 비교할 때 내국인은 7만7000명(-0.2%) 줄었지만, 외국인이 10만8000명(5.6%) 증가하면서 총인구 ‘마이너스’를 피했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지난해부터 고용허



가제가 확대됐는데 고용 허가과 계절 노동 인력이 늘어났다”며 “지역 단위로 해외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국적은 중

국(한국계)이 53만8000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8만5000명, 14.0%)과 중국(22만3000명, 10.9%)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집중도는 심화했다. 권역별 인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가 2630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8.6%)이었다. 전남은 생산연령인구 비중(63.7%)이, 세종은 고령 인구 비중(11.1%)이 가장 낮았다.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처음 800만선을 넘어섰다. 2019년 600만 가구를 돌파한 이후 2021년 700만 가구를 넘어섰고, 3년 만에 800만 가구에 도달했다. 1인 가구 비중도 3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원석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SOLD

\$1.19 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Move-in Ready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페어팩스 타운홈

SOLD

\$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COMING SOON 리스팅

RENTED

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차고1, 굿 로케이션
수리중: BrandNew LVP Floor,
전체Paint, Ceiling Lights, Blinds,
냉장고, 마루계단, 차고도어 등
**7월1일부터 입주가능

버크 싱글홈
\$1.25M

방4, 화3.5, 차고2
3810 Sf, 0.25 에이커
숨이 아늑다운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집 흘러내린 산청마을, 전 주민이 고향 떠난다

극한호우 산사태, 지반붕괴 위험 커
마을 진입금지, 사실상 복구 불가능
주민 “고향 보이는 곳, 이주지 마련을”

“마을 지반이 무너지면서 우리 하우스
농막이 원래 있던 곳에서 60m나 떠내
려 왔다.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마을의
집과 땅이 갈라져 있어 마을에 발 디딜
엄두가 안 난다.”

29일 오후 주민 홍혁기(52)씨가 전한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상능마을 상태
다. 해발고도 300m의 산기슭에 위치한
이 마을은 지난 19일 ‘극한 호우’로 마
을 아래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그 위쪽
에 있는 마을 지반이 꺼지면서 주택 등
이 아래로 쓸려 내려갔다. 마을 일부가
완전히 폭 꺼진 것이다. 마을 하리가 폭
깊긴 듯, 내려앉은 땅속에 주택이 파묻
혔다. 추가 지반 붕괴 위험이 커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땅 꺼짐으로 지반이 기울면서 벽이
‘썩썩’ 갈라지고 문이 열리지 않는 주택
도 있다. 토사와 지반침하로 도로마저
유실되면서 마을 접근조차 쉽지 않다.
상능마을 주택 24동과 재실(齋室) 2동
등 건물 26동은 이번 산사태로 대부분
파손됐다.

이에 산청군은 마을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마을을 통째
로 옮기는 ‘집단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
다고 29일 밝혔다. 마을 대체 부지를 마
련해 그곳에 이주 단지를 꾸린 뒤 집단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제보리에 있는 상능마을이 지난 19일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집이 토사와 함께 무너졌다.

[사진 산청군]

이주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상능마을
엔 13가구 16명이 살고 있었다. 전체 집
은 24동인데 나머지 주택은 주말 주택
이나 빈집이라고 한다. 주민 상당수는
70·80대 고령이다.

이 마을에서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
배하는 홍혁기씨는 “산사태가 발생한
야밤에 갈라진 땅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고 건너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
았는데, 3000평 농장은 모두 무너졌다”
고 허탈해했다. 그는 “지금도 지반이
침하하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과물 폭우와 끔찍한 산사태 속에서
일부 주민이 마을에 고립된 적은 있지
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들
주민은 지난주까지 임시 거주시설인 생
비량초등학교에 머물다 이번 주부터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마을은 추가 붕괴가 우려돼 곳곳
에 쌓인 흙더미를 걷어내는 작업도 여
의치 않다. 마을엔 진입 금지 조치가 내
려졌다.

김광연(57) 상능마을 이장은 중앙일
보와의 통화에서 “도저히 사람이 들어
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마을 기능

을 상실했다”고 착잡해했다. 이어 “마
을 아래 토사를 치우기도 어렵다. 잘
못 치우면 위에 쌓인 흙더미가 쏟아지
거나 지반이 무너져 사람이 다칠 수 있
다”고 했다. 김 이장은 “어르신들 대부
분이 이곳에서 나고 자란 탓에 고향 마
을을 떠나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크다”
고 했다. 그러면서 “마을이 보이는, 산
사태 우려가 없는 아래쪽에 이주 단지
가 마련돼 ‘고향이라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게 주민들 심정”이라고 전했다.
산청군은 경남도와 함께 중앙정부에
상능마을 집단 이주를 건의했고, 향후

이주 비용 등 필요한 예산을 논의할 예
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상능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슨 일
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주 단지를 추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연 재해로 마을 전체가 집단 이주
한 사례는 드물다. 경남에서는 22년 만
이다. 2003년 거제시 일운면 와현마을
집단 이주가 유일하다.

당시 와현마을은 태풍 ‘매미’의 내습
으로 큰 피해를 당해 130여 명(73가구)
이 거처를 옮겼다.

안대훈 기자

상반기 적발 마약 2680kg, 작년보다 9배 늘었다

관세청 “8933만명 동시투약분”
미국 국경감시에 아시아로 침투

올해 상반기에만 2600kg이 넘는 마약
이 적발됐다. 지난해보다 9배 늘며 역
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속을 강화하자 중남미 마약 조직
이 새로운 시장인 한국으로의 밀반입
을 연이어 시도하면서 적발량이 증가
했다.

29일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 밀수 적
발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적발된 마약 밀수는 617건이
었다. 중량으로는 2680kg에 달한다. 적
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중량은
800% 각각 늘었다. 중량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
약 2680kg은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
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인구(지난해
기준 5181만 명)의 1.7배에 이르는 8933

만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적발 중량이 크게 늘어난 건 올 상
반기 강릉 옥계항(1690kg)과 부산신항
(600kg) 등 2건의 대규모 코카인 밀수
가 적발된 영향이 컸다. 적발된 마약
주요 품목은 ▶코카인(2302kg) ▶필로
폰(152kg) ▶케타민(86kg) ▶대마(65
kg) 등 순이다. 이 가운데 코카인은 지
난해 상반기 대비 적발 중량이 80배나
늘었다.

마약이 출발한 지역도 다양해졌다.
올 4월과 5월의 강릉 옥계항과 부산신
항에서 적발된 대량의 코카인은 각각
페루발과 에콰도르발로 파악됐다. 그
동안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마약은
선박 등을 이용한 단발성 밀수였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로 연이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캐나다의 고강
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진 효과로
중남미 마약 조직이 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 지역도 새로운 마약 공급처로
떠올랐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밀수된
마약 중량은 전년 대비 191% 늘었다.
관세청은 국내 밀반입 마약의 최대 출
발 지역인 동남아에서 여행자와 화물
단속이 강화되면서, 유럽 지역이 새로
운 공급처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관세청은 동남아·북미·유럽 등 주요
마약 출발 국가의 관세당국·수사기관
과 협조해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매달 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장은 “최근 2년 연속 국내 마약사범이 2
만 명을 웃도는 등 불법 마약류가 우리
사회 전반에 침투해 가고 있는 실정”이
라며 “불법 마약류 해외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인형·과자 속에 마약 29일 ‘2025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서울세관
관계자가 인형과 과자봉지(작은 사진)에 숨긴 마약밀수 단속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효성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는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T. 703-652-4265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종류	주소	가격	특징
주택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970,000	Woodbridge 외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8512 Pine Spd, Severn, MD	\$650,000	2.75% 군인 융자 그대로 이어받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8/18 세들먼트 완료 NEW
	1631 Cecile St, McLean, VA	\$1,420,000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들먼트,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틸리티 오픈할 필요 없음 7/1 세들먼트 완료
	1930 Battery Park, Vienna, VA	\$1,315,000	여러 오피스 경쟁 최고 독점, 이기는 오피스 자선 있음, 5/20 세들먼트 완료 NEW
	2325 9th St, S, Arlington, VA	\$925,000	5/23 세들먼트 완료 NEW
매매 및 렌트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501,000	복수 오피스 빌딩 리스킹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 섀넌, 3주만에 세들먼트 완료 3/21 세들먼트 완료
	사업체 매매	델라삭(DC)	\$150K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여름/가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7월 말~8월 초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즉시 입주가능 NEW	\$3,600 4층, 지고 2 타운홈, 풀은 집, 관리 잘 됨, Willow Woods ES
3484 Beale Ct, Woodbridge, VA	7/20 입주가능 NEW	\$2,100 2층 타운홈, 방 3, 허1.5,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6830 McLean Province Cir, Falls Church, VA	8/1 입주가능 NEW	\$4,300 3층, 지고 1 타운홈, 지하층 복고 전체 마루, 관리 잘 됨, Haycock 초-몽펠로우 중-매클린 고
8812 Higdon Dr, Vienna, VA	8/1 입주가능 NEW	\$5,000 집 전체 레노베이션했음, Greensboro/Spring Hill 메트로 걸러갈 수 있음, West Blair ES - 길마중 -
6867 Williamsburg Pond Ct, Falls Church, VA	8/1 입주가능 NEW	\$4,950 헤이박 초-몽펠로우 중-매클린 고, West Falls Church 메트로 걸러서 5분, 안전하고 좋은 단지, 99% 마루
1498 Hampton Hill Cir, McLean, VA	7/10 입주가능 NEW	\$5,500 방 4, 허 3.5, 맥클린 내 유망하게 수영장 있는 단지, 맥클린 다운타운, 교통/상권 편리
3092 Southern Elm Ct, Fairfax, VA	2년 7/15 입주가능 NEW	주재원 마켓에 안내 놓고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렌트할 중형에서 바로 입주 예정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밤을 ‘지냈다’는 당신께

한국에서는 폭염이 이어지며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방 밖의 온도가 25도 이상인 무더운 밤을 일컫는데, 불면증을 유발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자 보려고 했다가 땀뻑 밤을 지낼 뻔했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이렇게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보낸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밤을 지새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밤을 지새다’는 어색한 표현으로, ‘밤을 지새우다’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 된다. ‘지새다’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다. 자동사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일컫는다. ‘꽃이 피다’의 ‘피다’, ‘해가 쏘다’의 ‘쏘다’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를 피다’ ‘해를 쏘다’라고 하면 매우 어색하듯, 자동사는 조사 ‘을/를’을 사용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새다’와 ‘새우다’ 역시 마찬가지다. “에어컨이 고장 나 선풍기만 틀고 잤다가 날밤을 썼다”에서와 같이 ‘밤을 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새다’ 또한 자동사이므로, “밤을 새우는 일은 건강에 좋지 못하다” 등과 같이 ‘새우다’를 써야 한다.

많은 이가 ‘새다/지새다’를 ‘새우다/지새우다’의 준말로 생각해 잘못 쓰는 듯하나 준말이 아닌 각기 다른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주의해 써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세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타)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자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나이를 잊은 ‘호모 에루디티오’



임상환
LA중앙일보
OC취재담당·부장

기 때문이다.

호모 에루디티오적 특징이 특히 시니어 집단
에서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한인 교회들은 시니어 대학을 운영하며 음악, 미술, 영어, 컴퓨터와 스마트폰, 성경 공부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 한인 단체들도 시니어가 관심을 가질 법한 각종 세미나, 워크숍을 열고 있다.

마라톤, 배드민턴, 탁구, 라인댄스 동호회, 시와 수필 작법을 배우는 문학 동호회, 함께 노래하며 친목도 다지는 합창단 등도 은퇴한 시니어들을 주축으로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 각 분야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모임인 OC시사토론회는 시니어들의 호도 에루다티오적 특성을 자극하는 독특한 주제의 포럼 시리즈를 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한국 근·현대사 쟁점’이란 주제의 포럼 시리즈를 열었다. 8월에 걸쳐 진행된 포럼은 ‘조선은 안 망할 수 있었는가’, ‘독립운동은 효과가 있었는가’, ‘종교는 한국을 구원할 것인가’ 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뤘다.

OC시사토론회는 지난 10일부터 '미래를 여는 창: 신생 기술' 포럼 시리즈를 시작했다. 총 11회 열릴 포럼 주제엔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 '블록체인', '뇌-기계 연결과 뉴로테크' 등 우리의 미래를 바꾸놓을 신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서명룡 OC시사토론회 대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래를 예상하는 통찰력을 기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적합할 만한 주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이란 주제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기술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보이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OC시사토론회의 사례는 호모 에루디티오의 관심 분야가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를 잊고 배움에 몰두하는 호모 에루디티오들의 활동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행복한 노년 생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각된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하기 때문이다.

배워서 즐겁고 건강에도 좋다는데 호모 에루 디티오로 사는 걸 마다할 이유도 없다. 공자도 2500여 년 전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고 했다. 나이를 잊고 배움에 몰두하는 호모 에루디티오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열린광장

사후 세계에 대한 사색



김택규
전 한국 감신대 객원교수

가며 수많은 경험을 했고, 심지어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 영계에서의 체험들을 약 30권의 책으로 기록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이브 알렉산더 박사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현재 72세인 그는 2009년 희귀한 뇌 손상으로 인해 7일간 뇌 사 상태에 빠졌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며, 『천국의 증명: 한 신경외과 의사의 사후 경험담』(Proof of Heaven: A Neurosurgeon's Journey into Afterlife)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오프라 윈프

리 쇼를 비롯한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뉴스위크』지가 ‘천국은 실재한다(Heaven is Real)’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커버스토리로 다루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스베덴보리와 알렉산더 박사 모두 최고 수준의 지성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저세상’ 이야기는 매우 심오하고 수준 높은 통찰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인 펄시 콜 목사의 이야기나 책을 보면 표현이 물질적이고 상당히 저급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세상, 혹은 영의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라는 점이다. 그곳은 시간 대신 영원(eternity), 공간 대신 무한(infinity)의 세계이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다.

따라서 현재 시공간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그곳’에 대하여 ‘잘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손 하이, 프리스트마를 2025 새상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5. 애난데일 싱글 Under Contract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포커먼, 방 3, 화 3, 커트지, 새지붕, 도라브라치 1400제, 풀을, 2,372sqft, 0.46acre, SOLD AS IS, 동네에서 보다 신인블이상 번성, 리모델링/투차 가차늘음, 395/236/495/95/66	10. 센터빌 벅들타운 \$599,900 방 3, 화 2.5, 차고 1, Hmar 인근, 29/Braddock/28,66 Active
2. 찬틀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6.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 3, 화 2.5, 차고 1, 좋은 학교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Coming Soon	11.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Under Contract
3. 던로링메트로와일 콘도 \$470,000 방 1, 화 1, 1/2 층 오픈 loft 1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7.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 3, 화 2.5, 차고 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Coming Soon	12. 맥클린 콘도 \$300,000/2.\$409,000 1. 방 1, 화 1, 762sqft 2. 방 2, 화 2, 1,095sqft McLean High, RT 495, 66/267/1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71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아이 리즈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매우 주정, 백드록, 연못, 분수, 테크, 음향시스템 등)	8.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필라즈 공항 Coming Soon	13. 찬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Rented
•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욕조, 하드우드 바닥, 선불, 고급 조명 • 특색이 찬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 인클루드 스타일,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 최신 HVAC, 경수 시스템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9.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OLD	14. 매매/리스 *샌티발 출신 성업률 미장원 워워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성업률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 옆



충주비료는 1950년대 원조를 받아 공장을 짓는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59년 윌리엄 유엔경제조정관(맨 앞) 등이 준공을 앞둔 충주비료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 국가기록원]

6·25 참극 뒤 경제원조, 60년대 중화학공업 씨앗

‘원혼의 나라 조국아 / 너를 이제까지 지켜온 것은 비명뿐이었지.’

시인 구상은 ‘조토(焦土)의 시’에서 6·25전쟁이 끝날 무렵을 이렇게 읊었다. 그렇다. 전쟁은 비극이다. 민간인 68만 명과 국군 16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가족과 친척이, 친구가 사라졌다. 건물 시설 등의 자산 피해는 조사된 것만 약 13조원(2020년 가격 기준)에 달했다.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대한민국은 폐허가 됐다. 이웃 사이, 심지어 일가 간에도 적대와 고발이 만연했다. 경제학자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데이선 전 교수는 노예무역 시대의 상호 납치, 약탈로 인한 사회적 신뢰 붕괴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6·25도 유사한 충격을 주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섰다. 경제적으로 마중물이 된 것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였다. 전쟁을 통해 한국이 절대 잃을 수 없는 자유민주 진영의 최전선으로 떠오르면서 경제 원조의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트리거’(결정적 계기)로 만든 건 우리 스스로였다. 한국 이상의 많은 원조를 받은 저개발국 중 성장 신호를 이룩한 나라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

휴전을 앞둔 1953년 6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이른바 ‘타스카 보고서’가 제출됐다. ‘미국의 안보 이해는 한국 경제의 강화를 요구한다’로 시작하

는 보고서는, 한국 육군을 즉시 16개에서 20개 사단으로 늘려 유지하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무상원조 약 9억 달러를 줄 것을 제안했다. 식량 등을 주는 단순 ‘구호 원조’가 아니라 경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부흥 원조’였다.

서울대 교수 교육 ‘미네소타 프로젝트’

경제부흥 원조 최고조기였던 1955~60년에 미국은 매년 2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원조의 약 30%는 철도·발전소·통신·상수도 등 다양한 기반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한국인을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중에 국립 서울대 재건을 위한 이른바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다. 서울대 교수 218명이 평균 18개월 동안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경제부흥 원조 가운데 나머지 70%는 주요 산업에 필수인 투입재, 즉 비료·원면·레이온사·화학원료 등이었다. 55~60년 6년 동안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원조에 의한 수입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77%였다. 이를 수입한 덕에 국내 관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해 60년대 수출에 큰 몫을 함으로써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다.

경제 원조를 이후의 고도성장과 잇는 고리는 기업, 그리고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이었다. 원조를 적극 활용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무대로 나아가기를 꿈꿨던 기업인과 전문 인력의 성장이 한국과 다른 저개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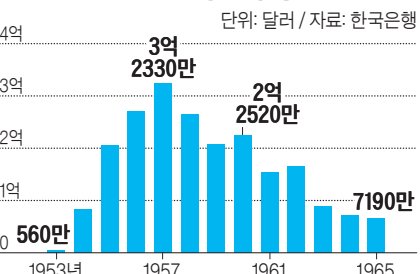
전쟁으로 확 늘어난 미국의 지원 공장 건설과 원자재 확보에 사용 충주비료 경험 바탕 울산공단 조성

농촌 남성들 군대 규율 경험하며 도시 산업 노동자로 거듭나 전쟁 겪으며 여성 경제활동 늘어

의 차이였다.

충주비료가 대표적인 예다. 충주비료는 3300만 달러가 소요된, 50년대 제조업 관련 원조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이는 비료 자급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60년대 말 울산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대한석유공사와 충주비료가 주도했으며, 신설 기업에 충주비료의 인력이 다수 참여했다.

미국이 한국에 준 경제부흥 원조 금액



삼성·LG의 성장 배경에도 원조가 있었다. 주로 투입재, 때로는 기계를 낙찰받아 생산을 확대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자료에 따르면, 57년의 약 4개월 동안 삼성물산이 83만 달러어치를 낙찰받아 민간기업 중 2위, 라화학은 40만 달러로 8위였다. 1위는 양곡과 비료 등을 수입하는 대한양비(89만 달러)였다. 상위 중에 수입에만 주력했던 기업은 60년대 이후 사라지거나 뒤로 밀려났고, 삼성·LG 등은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됐다. 주로 입찰을 통해 원조 자금이 배분됐기에 정경유착이 끼어들 여지도 별로 없었다. 당시 평균 입찰 경쟁률은 2:1이었으며, 57년에 소액이라도 배분받은 기업이 800여 곳에 달했다.

6·25전쟁은 노동력 발전에도 기여했다. 많은 농촌 남성들이 군대식 규율을 경험했다. 자유롭게 일하는 농민은 시간 맞춰 일하는 도시의 직장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농민이 산업 노동자로 바뀌는 과정은 서유럽에서도 쉽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의무교육과 함께 남성의 군대 경험이 이 변화를 추동했다.

“여성의 성격이 급속도로 남성화”

여성의 노동 참가 또한 확대됐다. 김미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여사장의 탄생』에서 ‘여성이 빈번하게 시장을 출입하고 장사를 한 것은 6·25 때부터’라고 했다. 전쟁에 나간 남성을 대신해 생계를 이어야 했기 때

문이다. 57년 실시한 ‘서울시 부녀 직업조사’에서 서대문구 흥은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에서는 남편이 사망한 여성 73명 중 절반 가까운 31명이 행상과 식료품점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성들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는 않았다. 60년 ‘가정교육’이라는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지금 시장의 8할은 여자들이 상점 주인의 주권을 잡고 있다. 여성의 성격은 급속도로 남성화하고 있다. 수줍다는 것, 부끄럽다는 것, 이따위 용어는 이제는 여성에게 쓰일 수 없게 됐다.’

의료·건설 분야에서도 전쟁과 원조는 발달을 자극했다. 군의관으로 참전했던 문태준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미 군의관의 교육을 받으면서 수혈·마취를 비롯한 외과 수술 경험을 쌓았으며, 예방 교육과 환자 후송 시스템도 이때 발전했다”고 회고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현대건설의 예에서 보듯이 미군 공사와 원조 공사 수주로 국내 기업이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역사학자인 이언 모리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전쟁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인 동시에 진보를 이루게 하는 가장 큰 동인(動因)”이라고 했다. 참혹한 비극이었던 6·25전쟁도 한편으로는 동인으로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동인으로 잘 활용했다. 역사의 전환기에 다시 한번 한국·한국인의 힘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류상윤 울산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려나 고민되시나요?
하루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새 빌더홈
페어팩스시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새 빌더홈
채널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새 빌더홈
채널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 설

관세 협상에선 “기업과 원팀”, 국회에선 옥죄기 입법

한·미 관세 협상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 투자 펀드 규모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을 타개할 방법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이 카드가 가능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의 경쟁력 덕이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관심을 보내는 것은 중국의 조선업 견제와 자국 조선업 재건에 동맹국인 한국만큼 적절한 파트너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상에 기업도 부응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필리조선을 인수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은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주체는 결국 기업들이다. 정부의 대미 협상 SOS에 기업들이 한 팀을 이뤄 대응하는 것은 결국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본격적 관세 협상을 앞두고 우리 기업과 ‘원팀’을 이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은 이런 원팀 약속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더세진’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

조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심사, 의결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태세다.

각종 규제 입법 추진에 기업은 망연자실이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에 따르면 이사 선임과정에 소액주주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수 지분을 가진 외부 세력이 연합해 경영권을 뒤흔들며 사업 재편 반대와 주요 자산 매각 등 무리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경영권 방어 수단의 보완 없이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당장 수많은 하청 업체와 협업하는 조선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구조조정이나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경영에 큰 부담이 생겼다.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마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의 엔진이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 것도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다. 아쉬울 때는 기업과 원팀을 강조하더니 뒤에서는 기업을 코너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다.

노란 봉투법에 대한 우려는 크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업체와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경영계 망연자실
주한 유럽상의마저 “한국 철수할 수도” 우려

남북대화 추진, 무조건 속도내기가 능사 아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29일)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는 담화를 냈다. 전날 “조·한(남북)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에 이어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비핵화 협상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대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이다.

김여정의 입장은 예상했던 바다. 그런데 주주부처인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그제(28일) 보름밖에 남지 않은 8월 을지자유방파(UFS)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여정이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한 직후 나왔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원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북 속도전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2025년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북한은 2024년 북·러 조약 체결과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러시아와 밀착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지원을 받아 유엔 대북제재의 압박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김여정도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줘 오히려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남남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 시도가 주한미군 위상 변화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추진 중인데, 자칫 한국이 주한미군의 효용성을 평가절하한다는 인상을 미국에 줘 대북 안보 태세 약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남북, 북·미 대화 추진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긴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끝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북 억지력이 대화 쿠폰인가



11년 전 런던에서 일군의 활동가를 만났다. BBC가 한국어방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도. BBC 저널리스트인 댄 데이먼을 포함해서였다.

그해 3월 이들이 만든 ‘비공식 BBC 한국어방송’의 시범방송도 있었다. 몇몇 탈북민을 포함한 출연진은 축구 얘기부터 했다(영국이었다). 첼시·아스널·리버풀·볼턴·선덜랜드… 줄줄이 튀어나왔다. “김정은도 응원하는 팀이 있을까”라고 하자 이구동성으로 “없어요”라고 외쳤다. 어설프었으나 열정적이었다.

데이먼은 “BBC는 과거에도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시범방송으로)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옛소련 체제 동유럽을 오래 취재했다.

당시 BBC는 난색이었다. 시청료가 2010년 이래 동결된 터라(이전엔 매년 올랐다)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다고 했다. 대신 의회가 뛰었다.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턴 경이 의회 내 그룹을 만들었다. 한국어 방송도 그의 제안이었다.

그레도 설마 했다. 하지만 2년 반 뒤 BBC가 외국어 방송을 확대하며 한국어도 넣었다. 북한의 밤 시간대에 30분짜리 뉴스를 단파·중파 라디오로 송출했다. 영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알턴 경은 이런 말을 남겼다. “북한에선 외국 언론에 대한 접근이 금지돼 있고, 접근만으로도 야만적으로 처벌된다. 오늘 BBC와 영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검열과 탄압에 맞서 입장을 밝혔다. 이제 자유로운 발언, 객관적인 뉴스, 외부 세계의 목소리가 북한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전달될 것이다.”

BBC 얘기가 떠오른 건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 송출을 중단해서다.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 담당자들은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만했다.

올 초 북한 주민들은 밤 11시면 11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25개 주파수 방송 중 일부라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미국의 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송출이 중단된 데 이어 국정원이 운영하던 4개 라디오도 중단됐다. 이전 5개 방송에서 6개 주파수만 있다. 38노스가 “북한의 승리”라고 한 이유다.

24시간 기준으로 BBC 외엔 KBS와 우리 국방부, 미국 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방송 3곳 정도 남았다. 지금 봐선 우리 쪽도, 미국 쪽도 사정이 애매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들었던 목소리들이 최악의 경우 BBC만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통은 “대화를 위한 신호를 던지기 위해 북한 주민들에겐 참 못할 짓을 했다”고 했다. 동감한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내어주는 게 대북방송만은 아니다. 과거라면 대화해도 줄까 말까 하던 것들을 미리부터 주고 있다.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 금지는 논란이라도 있었다. 대북방송은 별 얘기가 없었는데도 그랬다.

미국 이어 국정원 대북방송도 중단
이젠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거론
협상하기 전에 협상카드 다 내주나

심지어 김여정이 뭐라니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론까지 꺼내며 “대통령실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하명령 논란이 일었던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 때의 반복이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이 북·미 회담장에 나오면서 강하게 요구했고, 트럼프가 달칵 받아들여 당시 미군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었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선 매우 우려했다”고 적었다. 당시엔 그레도 협상하는 동안이었는데 이번엔 협상 전망조차 없는데 축소·연기다.

북한과 잘 지내길 바라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드를 다 내리면 안 패릴 거라고 믿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미리 다 내어주면 다음엔 뭘 더 내어주려고 하나. 대북 억지력이 대화 쿠폰은 아니지 않나.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2-751-9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판매계약대상지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비즈니스의 안전한 길잡이!!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특점 Triangle 타운콘도

2014년 BUILT, 방3,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GARAGE, 고급스러운 스타일 부엌
(Granite Countertops, SS Appliances), 아일랜드,
Wood Floor, New Paint, New Deck

\$435,000



특점 Annandale 타운홈

2 Car Garage, 엔드 유닛, 방4,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2020년 BUILT, 밝고 환한 럭셔리 홈,
H-MART 가까움

\$710,000



특점 Centreville 싱글홈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된 예쁜 단독 주택, 전면 벽돌,
2 Car Garage, 방4, 화3 1/2, Gourmet Kitchen,
워크 아웃, 넓은 Deck, 지하에 영화관 시설과
Wet Bar가 있는 넓은 레크리에이션 룸

\$915,000



특점 Stafford 싱글홈 렌트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3,6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공황장애가 연예인 병?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다

일상 위협하는 공황장애 난데없이 숨이 가빠 오고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뛴다. 이마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 문득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한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공황장애는 단순한 공포감을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개그맨 이경규씨가 공황장애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해당 질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하지수 기자

공황장애는 불안 장애의 일종이다. 유명인들이 잇따라 투병 사실을 고백하면서 ‘연예인 병’이라는 인식이 퍼졌지만, 특정 직업군에서만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진료 인원도 증가 추세다. 보건의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22만 명으로 10년 전(9만 2000명가량)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응급실 찾아도 ‘이상 없음’

공황장애일 때는 공황발작이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죽을 것 같은 공포감과 자율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상황이다. 맥박이 급격히 빨라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며 식은땀이나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발작은 보통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며 30분 안에 가라앉는다.

이러한 증상을 두고 처음부터 공황장애를 떠올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심장이나 폐 질환을 의심해 응급실을 찾는다. 하지만 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다 뒤늦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로 확진받곤 한다.

간혹 공황장애를 정신력 문제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공황장애는 유전적·심리적·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다. 다만 불안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공황장애를 앓을 확률이 높고, 대

다수의 환자는 발병 전 업무나 대인관계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에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전상대상피질 등의 과도한 활성화나 불안 조절과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 이상도 공황장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공황장애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드물다. 오히려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공황장애에 광장공포증(갑히 빠져나갈 수 없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공간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 장애)이나 우울증이 동반돼 치료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에 제때 치료를 받으면 환자의 70~90%는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때 약물과 인지행동치료를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약물치료 시 처방받는 대표적인 약제는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불안·우울 등 정서적인 상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약을 먹으면 대개 한 달 이내에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지만,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보통 6개월 이상 치료를 이어가도록 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유정 교수는 “치료 중에는 중술과 정신과 약을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약물의 진정 작용이 평소보다 과도해져 크게 넘

어지는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술은 단기적인 진정 효과 뒤에 반동성 불안과 수면 장애를 유발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만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신경안정제를 골라 먹는 일도 삼가야 한다. 힘들 때마다 약을 찾는 습관이 생겨 약물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잠 부족하면 불안감 증폭될 수도

인지행동치료는 말 그대로 공황발작과 관련된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행동 전략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공황발작으로 죽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등의 생각을 갖도록 하고 호흡, 근육 이완 훈련 등을 통해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돕는다.

여기에 생활습관까지 개선하면 증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이 그중 하나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건설 교수는 “수면 부족은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고 불안을 증폭시켜 공황발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운동도 중요한 요소”라며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돕고 심리적 긴장을 완화해 공황 증상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은 일주일에 3~5회, 30분 이상씩 꾸준히 하는 게 권장된다.

혹시 나도? 공황발작 체크리스트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

	YES	NO
• 가슴 두근거림	☐	☐
• 발한	☐	☐
• 몸의 떨림	☐	☐
•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	☐
• 질식할 것 같은 느낌	☐	☐
•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	☐	☐
•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	☐
• 어지럽거나 멍한 느낌	☐	☐
• 출거나 화끈거리는 느낌	☐	☐
• 감각 이상(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림)	☐	☐
• 비현실감	☐	☐
•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	☐
• 죽을 것 같은 공포	☐	☐

이건설 교수가 짚어주는 공황장애 궁금증

Q. 공황발작을 겪으면 다 공황장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황발작 자체는 누구에게나 한두 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카페인 과다 섭취 등 특정한 신체 상태일 때 그렇습니다. 공황장애는 이러한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단발적인 공황발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약을 먹고 불안감이 더 커졌는데 괜찮은 건가요?

“공황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로 나뉩니다. 일부 항우울제는 복용 초기 1~2주간 불안이나 초조감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고 드물게 자살사고의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용 초기에는 보호자와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Q. 흡연도 증상 조절에 악영향을 주나요?

“담배 속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 수를 증가시키고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즐기거나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커피나 에너지음료, 초콜릿 등에 든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생리통에 난임 고통까지 더해진 여성, 자궁 보존 수술로 희망 안겨

내막 조직 근육층 침범한 자궁선근증 병변 완전 절제한 후 자궁 성형·보존

요즘 자궁선근증으로 힘들어하는 여성이 많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으로 침범해 증식하거나 특정 부위에 병변을 일으켜 자궁이 커지는 질환이다. 자궁 내막 세포 조직이 근육층을 파고들어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극심한 통증이나 생리혈 과다, 부정 출혈 같은 증상으로 삶의 질이 바닥을 친다.

『오늘 자궁 맑음』(교유명사·사진)은 자궁선근증 환자들의 치료 여정과 환자들과 교감하는 의사의 고뇌를 담았다. 자궁선근증은 병변 위치에 따라 증상의 정도와 양상이 다를 수 있어 환자별 맞춤 치료가 요구된다. 보통 약물치료를 먼저 하다가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수술 치료를 고려한다. 저자인 노원슬지대병원 산부인과 권용순 교수는 “건강한 삶을 누리길 원할 때 의사와 상담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며 “특히 자궁선근증이 난임의 원인이 돼

임신 가능성이 희박할 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자궁을 보존하는 자궁선근증 수술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의사로 손꼽힌다. 그가 개발한 수술의 원리는 이렇다. 양측 자궁동맥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수술 중 출혈량을 감소시켜 시야를 확보한다. 그런 다음 자궁의 정중앙을 절개해 그 단면을 확인하고 양측 병변을 완전히 절제한다. 양측 구조면을 맞춰가며 한 땀 한 땀 봉합해 정상 구조의

자궁을 성형·보존한다. 마지막으로 자궁동맥 일시 차단 클립을 제거한 뒤 다시 혈액이 잘 흐르는지 확인 후 수술이 끝난다.

기존에는 자궁선근증을 수술하려면 자궁 적출만이 유일한 답으로 통했다. 환자들은 이런 현실에 낙담했고,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요구가 들끓었다. 권 교수는 “기존의 치료가 최상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생각했고, 최상의 치료법을 찾아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가 되길 강하게 원했다”며 “자궁 적

출을 원하지 않는 수많은 환자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자궁을 보존하는 방식의 선근증 수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선근증이 심하면 자궁 환경이 변하면 서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고 임신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 권 교수는 “질환 정도와 수술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술한 후에는 임신력이 향상하고 출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수술한 환자들의 임신과 출산이 실제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케어피플 홈헬스

서비스 지역

애넌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8/11 ~ 8/15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안면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통

52세 여성환자가 한쪽 얼굴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필자를 보러왔다. 환자는 내원 약 2달 전부터 오른쪽 얼굴 부위에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통증은 수시로 하루 수 회에서 수 십 회 이상 생기는데 그때마다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에 걸쳐 아픔이 지속된다고 하였다. 특히 음식물을 먹을 때나 물을 마실 때에 통증이 유발되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통증이 생긴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순간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감각이 생길 때도 있었다.

본 환자의 증상은 신경통의 일종으

로 뇌에서 나오는 열 두 쌍의 뇌신경 가운데 하나인, 얼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이라는 다섯 번째 뇌신경의 문제이다.

삼차신경이라는 이름은 말그대로 가지가 세 개가 있다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보통 두번째와 세번째 가지가 잘 침범되어, 그 분포 영역인 뺨이나 아래턱 등을 따라 나타나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삼차신경통”이라고 한다.

삼차신경통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삼차신경통과 특정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이차성 삼차신경통으로 나눈다. 연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구에 의하면 전체 환자의 약 5-8%의 경우 삼차신경이 나오는 부위와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 즉 뇌종양, 뇌동맥류, 다발성 경화증, 외상 등과 같은 이차성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삼차신경통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위와 같은 구조적 원인을 감별해내기 위해 뇌와 뇌혈관에 대한 촬영을 시행해야 한다. 본 환자의 경우도 뇌 자기공명술 및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어떠한 이차적 원인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환자의 치료로는 먼저 약물치료가 시행되었으며 다행히도 소량의 약물로도 환자의 통증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었다. 보통 삼차신경통은 완치가 가능한 신경통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외과적인 미세혈관 감압술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보고되

고 있다. 수술을 고려하기전에 보통 먼저 약물치료를 시행해보며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삼차신경통의 통증은 흔히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도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 아픔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하지만 그 치료에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으므로, 삼차신경통이 의심된다면 주저할 것 없이 조기에 신경내과 전문의를 찾아보아야 한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Tel. (571)620-7159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은 치매…방심 말고 ‘기억력’부터 지켜라

경도인지장애, 치매 확률 10배

내년 100만, 20년 후 200만명 예상
악기 연주 등 활동으로 뇌 자극해야

고령화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1명은 치매일 정도다. 치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3년 치매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44년에는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는 한국인이 암보다 두려워한다. 가벼운 기억 장애로 시작해 서서히 기억력·인지력이 떨어진다. 중증으로 진행하면 뇌 인지 기능이 크게 떨어져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결국 가족 중 한 명이 매일 식사를 챙기면서 곁을 지키는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 치매 간병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등 사회적 활동이 단절되기도 한다.

반복적 단기 기억력 떨어지면 고위험군

치매 예방의 핵심은 기억력 유지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기억력을 잃고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중년 이후부터 반복적 단기 기억력 저하 현상이 있다면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일 수 있다. 뇌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는 사소한 내용을 가끔 잊어버리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일을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방금 듣거나 읽은



치매 예방을 위해 뇌 인지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적극 관리해야 한다.

인지장애 진단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기 기억력, 언어 유창성, 시간·장소 인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또 65~78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학습 인지기력, 얼굴과 이름 연계 인식 능력, 안면 인식 능력 등이 개선됐다. 포스파티딜세린의 두뇌 건강 개선 효과는 4~1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됐다. 또 식물 유래 성분이라 장기 섭취에 대한 안정성도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뇌세포 보호하고 기억력 개선 도와

지방에 녹는 인지질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은 외부 보충으로 섭취한 양 모두 체내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고를 때 포스파티딜세린의 지표 성분(핵심 성분) 함유량은 충분한지, 순도는 얼마나 높은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시중에 나온 포스파티딜세린의 순도는 30~70%까지 다양하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순도가 높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진다. 순도를 최대한 높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은행잎 추출물도 기억력 개선 효과를 보이는 대표적인 기능성 원료다. 포스파티딜세린과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개선을 강화하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잎 추출물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티페노이드 성분은 뇌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뇌 혈류 개선을 돕는다. 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세포 노화를 막아 기억력 증진에 긍정적이다.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도 낮춘다.

권선미 기자

정보도 잘 잊어버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리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한다. 아직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실행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중 매년 10~15%는 치매로 진행된다. 정상 노인의 치매 진행 비율은 1~2% 수준이다. 경도인지장애라면 상대적으로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10배 이상 높은 셈이다.

현재의 의학 수준으로는 근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지 못한다. 진행 속도를 늦춰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뿐이다. 뇌 인지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혈압·혈당 조절에 신경 쓰면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고,

악기 연주 등 새로운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는 것이 좋다.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섭취도 대안이다.

최근엔 대두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두뇌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은 물질이다.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한 종류인 포스파티딜세린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든다. 뇌 속 포스파티딜세린이 줄면 뇌세포 간 신호 전달 속도가 둔화해 기억력 감퇴, 인지력 저하 증상이 나타난다. 포스파티딜세린의 외부 보충으로 뇌세포 퇴행을 막고 뇌세포끼리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 뇌세포 연결망을 강화하면 더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기억력·인지력 등 뇌 인지 기능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 독성 물질이자 치매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여러 인체 적응시험을 통해 기억력 감퇴, 인지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평균 60.5세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12주간 투여한 결과 기억력은 13.9년, 학습 능력은 11.6년, 전달 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은 7.4년, 열 자리 숫자 암기 능력은 3.9년 연장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경도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 | |
|-----------|--------|---------|
| ◆ 치매 | ◆ 어지럼증 | ◆ 손발 저림 |
| ◆ 뇌졸중(중풍) | ◆ 이명 | ◆ 감각이상 |
| ◆ 파킨슨병 | ◆ 불면증 | ◆ 보톡스 |
| ◆ 두통 | ◆ 수면질환 | ◆ 통증 |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금 11AM ~ 2PM)



뷔페 메뉴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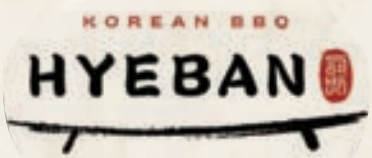
7월 25일 (금) 부터
“All Day Buffet” 시작합니다!

(Buffet 또는 Buffet + BBQ를 선택)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주말 발렛파킹 서비스 해드립니다.

가주 살면 은퇴비용 33만7000불 부족

4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은퇴자들이 저축한 것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주는 재정 부족액이 평균 33만7000달러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시니어리 리소스센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는 “은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법의 숫자’는 126만 달러지만 주택과 의료, 식비 등 필수 생활비 상승을 고려할 때 이 숫자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은퇴자를 결정할 때 자산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든, 가족의 노후 선택을 돕든 생활비와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든다”며 “은퇴와 장기 요양을 고민할 때 지역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어디에 살든 은퇴 준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선다”며 앞으로 필요한 비용과 생활 패턴, 돌발 상황까지 예측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은퇴자들이 예상하는 지출과 사회보장 연금·저축·투자 수입 사이에 평균 11만5000달러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이 충분히 마련된 상태로 나타난 곳은

은퇴 재정 부족 상위 5개주

순위	주	재정 부족액
1	뉴욕	448,000달러
2	하와이	417,000달러
3	워싱턴 DC	407,000달러
4	알래스카	342,000달러
5	가주	337,000달러

은퇴 비용 비싼 주

순위	주	평생 은퇴 비용
1	하와이	1,740,000달러
2	매사추세츠	1,310,000달러
3	가주	1,260,000달러

9개 주에 불과했다. 이 중 워싱턴주는 14만6000달러의 여유 자금을 확보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유타(12만1000달러), 몬테나(4만3000달러), 콜로라도(3만8000달러), 아이오와(3만2000달러), 미네소타(2만3000달러), 메릴랜드(1만3000달러), 캔자스(8000달러), 사우스캐롤라이나(2000달러) 순이었다.

은퇴 후 재정이 가장 부족한 주는 뉴욕으로 44만8000달러가 모자랐다. 하와이는 41만7000달러, 워싱턴 DC는 40만7000달러, 알래스카는 34만2000달러, 가주는 33만7000달러가 부족했다. 보고서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40%가 “저축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레니얼 세대는 57%, X세대는 56%, Z세대는



전국 대부분 주에서 은퇴자들이 저축한 것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는 은퇴 이후 재정 부족액이 평균 33만7000달러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은퇴비용 비싼 주 3위…자금 부족 5위 40%가 저축한 것보다 오래 살까 우려

51%가 저축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베이비붐 세대보다 은퇴 이후의 재정을 더 어렵게 내다봤다.

주별 생활비 차이는 은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하와이는 평생 은퇴 비용이 174만 달러로 가장 비싼 은퇴지로 꼽혔다. 매사추세츠와 가주는 각각 131만 달러와 126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오클라호마와

미시시피는 예상 비용이 65만 달러 이하로 나타나 가장 저렴한 은퇴지로 꼽혔다.

보고서는 “현대의 은퇴 기간은 보통 20~30년에 이르는데 주택과 의료, 식료품 등 필수 생활비는 급격히 상승해 자산을 잘 계획해도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집 수리 같은 큰 지출

도 전체 재정 계획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니어리 리소스센터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다섯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나만의 숫자를 파악할 것. 은퇴용 예산 계획 도구 등을 사용해 저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나만의 상황을 바탕으로 추정해야 한다.

둘째, 평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고비용 지역에 거주하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비용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혜택을 극대화한다. 소셜연금 최적화와 세금 계획, 최소 의무인출(RMD) 전략을 전문가나 무료 도구를 통해 미리 잘 계획해야 한다.

넷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의료비나 물가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하고 비상자금과 유산을 잘 관리한다.

다섯째, 대화 속에 답이 있다. 금융 전문가나 배우자, 자녀 등과 재정을 놓고 대화를 나눠 저축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서 답을 얻지 못해도 내 생각이 정리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은퇴자 3분의 2 “소셜연금에 의존” 응답

AARP 소셜 90주년 설문조사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사회보장제도 9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은퇴자의 약 3분의 2가 소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나 은퇴 이후 주

요 소득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05년 조사에서 절반 정도가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AARP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은퇴자 1200명 이상과 젊은 층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AARP의 마이키아 민터-조던 최고경영자(CEO)는 “응답자의 78%가 은퇴 후 사회보장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며 “5년 전 74%보다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소셜연금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36%로

2020년 대비 7%포인트 줄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6%가 사회보장제도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세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민터-조던 CEO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며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줄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초 지식 부족

도 드러났다. 70세가 되어야 소셜연금 수령액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3분의 1은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혜택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예측에 따르면 신탁기금이 2034년에 고갈되더라도 사회보장금은 약 20% 줄어든 상태로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전문의 칼럼 김성은 한림대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한국인 간암 원인 절반은 바이러스 간염, 지금 퇴치 적기

완치 가능한 C형 간염 조기 발견 중요 B형 간염 치료 대상 범위 확대해야

매년 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이다. 한국인 간암 원인의 절반 이상은 B·C형 간염 등 바이러스 간염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만성적인 간염 증으로 간이 딱딱하게 변하는 간 섬유화가 누적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한다.

바이러스 간염은 체계적인 검진·진단·치료를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로 퇴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올해부터는 완치 가능한 C형 간염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에 C형 항체 검사가 도입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만 56세면 누구나 생애 1번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지원된다. 숨어 있는 C형 간염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 연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C형 간염은 확진되더라도 강력하

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으로 8~12주 동안 복용하면 95% 이상 완치할 수 있다.

특히 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 성분의 범용 치료제는 모든 유전자형에 사용할 수 있다.

B형 간염도 지속적인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예전보다 유병률이 줄었다. 다만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B형 간염 유병률이 높다. 만성적 간염증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는 회색 지대를 줄이는 등 치료 대상 환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B형 간염 보균자는 250만 명에 이르지만, 실제 치료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현행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간 손상이 진행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치료가 어려워서다.

치료 시점이 늦어지면서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환자군이 존재한다. B형 간염으로 장기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신장, 골밀도 등 안전성 측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 푸마르산염(TAF) 기반의 치료제를 고려한다.

바이러스 간염 퇴치에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간경변증·간암의 원인은 바이러스 간염은 충분히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를 현장에서 치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바이러스 간염이 완전히 퇴치되길 바란다.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경력 50년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정설침구혈위대전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쿨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여름=공연 비수기’ 공식이 무색하게 올 여름많은 관객들이 다양한 공연을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지난 10일 개막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클래식 애호가와 입문자 모두를 위한 해설이 있는 공연 ‘누구나 클래식’,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관객들이 누워서 감상할 수 있도록한 ‘루시드폴, 정마리, 부지현 온 싱크 넥스트 25’.

[사진 세종문화회관]

요즘 공연장, 비수기란 없다

뮤지컬 ‘덕후(마니아 팬)’라고 자칭하는 한 누리꾼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7장의 공연 현장 사진을 올렸다. 이번 달에만 일곱 차례 공연을 봤다는 의미다. ‘회전문(반복 관람)’ 관객이기도 한 그는 3번 본 뮤지컬 ‘팬텀’의 커튼콜 사진과 함께 ‘위키드’, ‘브로드웨이 42번가’, ‘오늘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차미’ 등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사진들을 업로드했다. 그는 “‘뮤덕(뮤지컬 덕후)’들은 올여름 통장 조심하세요”라고 적었다.

공연계에서 여름은 대체로 비수기로 여겨졌다. 휴가를 맞은 직장인들이 공연장보다는 국내외 휴양지를 찾다는 통념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작들은 여름을 피해 개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공연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여름이 비수기가 맞나”라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 올여름 유독 대작 공연이 잇따라 선보이면서다. 뮤지컬 ‘위키드’, ‘맘마미아’, ‘마리 퀴리’, 연극 ‘셰익스피어

여름 휴가철에도 공연계 활기

6~7월 뮤지컬·연극 등 대작 잇따라

여름 예매액 5년새 389억→2928억

“어쩌면 해피엔딩 후광효과” 분석도

어인 러브’, ‘사의 찬미’ 등이 이달에 개막해 공연 중이다.

수치상으로도 여름 공연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6~7월 예매 공연 횟수는 2020년 1만5381편에서 지난해 4만1413편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이달 28일까지의 집계만으로 4만4460편을 기록했다. 6~7월 총 티켓 예매액도 코로나19의 영향권에 있던 2020년 388억 7752만원에서 2023년에는 2475억 2026만원, 올해 2927억 9231

만원으로 늘어났다. 6~7월 예매분의 실제 공연은 대체로 8월까지 이어진다. 공연시장 성장세에 따라 비수기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연 관람권 판매액은 1조4537억원에 이른다. 전년(1조2696억원) 대비 14.5% 불었다. 2023년을 기점으로 공연 시장 규모는 영화 시장을 뛰어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최근 뮤지컬을 중심으로 국내 공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연말 극성수기 이외의 계절적 특징은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며 “여기에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으로 국내 공연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올해 여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되려 여름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공연이 연이어 펼쳐지기도 했다. 예컨대 해외 유명 발레단의 내한 공연은 해당

단체의 오프 기간인 여름철에나 볼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20년 만에 영국 로열 발레단의 내한 공연이 성사되며 이달 4, 5일 관객을 찾았다. 파리오페라발레단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국내 갈라 공연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무대에 올린다.

국공립 단체의 여름 축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세종문화회관은 ‘경계 없는 무대, 한계 없는 시도’를 주제로 2022년부터 매년 여름 ‘싱크 넥스트(Sync Next)’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개막작이었던 ‘루시드폴, 정마리, 부지현 온 싱크 넥스트 25’를 비롯해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리퀴드사운드의 ‘OffOn 연희해체 프로젝트Ⅱ’ 등 독창적인 공연이 호응을 얻었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음 달 해설이 있는 공연인 ‘누구나 클래식’도 선보인다. 2010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립극장의 ‘여우락 페스티벌’은 이달 4~26일 열려 역대 최대 200여명 아티스트가 총 12개

작품을 선보였다.

공연계에선 올해 드물게 여름 겨냥 ‘패키지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신시컴퍼니는 자사 작품인 공포 스릴러 연극 ‘뱀미인’과 ‘2시 22분-A GHOST STORY’를 ‘썸머 패키지’로 한데 묶어 이달 말까지 판매한다.

궁극적으로 문화 소비 행태 변화가 계절적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를 점차 지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희운 대중문화 평론가는 “팬데믹 이후 소위 알고리즘, 숏폼 등이 일상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문화 소비 패턴도 과거처럼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데 모이기 보다는 점점 흩어지고 개인화하고 있다”며 “영화계의 ‘여름철 대작’, 가요계의 ‘여름 히트송’과 같은 현상이 사라지면서 타격 받는 분야도 있지만 충성도 높은 ‘덕후’들이 이끄는 공연 분야에선 이런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액션영화이지만, 쾌감 주는 액션은 땀했습니다”

넷플릭스 ‘트리거’ 이도역 김남길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국민 절반이 총을 다룰 수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에 총이 풀린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10부작)의 배우 김남길은 총기 재난 액션 드라마가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이같이 요약했다. 인터뷰는 29일 서울 삼청동에서 진행됐다. ‘갈등이 돈이 되는 세상에, 누구나 총

을 쏠 수 있다면?’이라는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트리거’는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불법 총기가 퍼지는 혼란 속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 ‘미드나이트’(2021)의 권오승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작품은 25일 공개 직후, 한국 넷플릭스 TV 부문 1위에 오르며 단숨에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29일 플릭스팩트를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까지 총 5개국 정상상을 차지했다.

김남길은 극중 사람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단 한 사람, 이도 역을 맡았다. 전직 군인이자 현직 경찰인 이도는 자신이 지닌 상처와 트라우마, 정의감 사이에서 고뇌하며 총을 다시 손에 쥘다. 김남길은 액션의 쾌감 대신, 총을 드는 이유와 그 뒤에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 묻는 드라마 전개에 끌려 이 작품을 선택했다. 그는 “총이 불법인 우리나라에



서는 작품의 설정을 판타지로 보면 그만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현실의 고통에 직면한 내용”이라며 “‘트

리거’는 총을 매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비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wo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불리할 뿐, 불가능은 없다

신체적 한계 넘어서 챔피언들
양쪽 손가락 8개 여자 테니스 존스
15번 수술에도 프로 대회서 우승
햄프턴, 초점 안 맞는 눈으로 선방쇼
육상 라일스, 과거 천식·ADHD 앓아

핸디캡(handicap).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다. 스포츠에서 핸디캡은 치명적이다. 상대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 해 이기기 어렵다. 더구나 정상급 선수들이 겨루는 대회 결승에서 핸디캡을 안고도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챔피언에 오른 선수들이 있다. 그들에게 핸디캡은 넘기에 힘들었던 허들일 뿐이다.

여자 테니스 선수 프란체스카 존스(25·영국·세계 84위)는 신체적 핸디캡을 딛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경우다. 존스는 지난 28일 여자프로테니스(WTA) 125 이탈리아 팔레르모 레이다시오프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아누크 코베르만스(172위·네덜란드)를 2-0(6-3, 6-2)으로 꺾고 우승했다. 존스는 유전성 질환인 외배엽성 이형성증 탓에 손·발가락이 기형이다. 손가락은 양손이 4개씩, 발가락은 왼쪽 4개, 오른쪽 3개로 태어났다. 15차례나 수술대에 올랐지만 큰 도움은 못 됐다.



프란체스카 존스, 해나 햄프턴, 노아 라일스(왼쪽부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한 '불굴의 스포츠인'이다. 존스는 손·발가락이 기형인 채로 태어났고, 햄프턴은 선천적 사시 탓에 날아오는 공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일스는 천식, ADHD, 난독증 등으로 오랜 기간 고생했다. [연합뉴스]

의사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8살 존스에게 “테니스를 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존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16세 때(2016년) 기어코 프로에 입문했다. 하체의 중심을 잡기 위해 지독할 만큼 체



력 훈련을 견뎠다. 악력을 기르기 위해 조막손이 마비될 만큼 라켓을 놓지 않는 훈련도 했다. 손이 너무 아파 올면서 운동했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데뷔 당시 1200위권이던 세계 랭킹은 이



번 우승으로 84위까지 올랐다. BBC는 “존스의 다음 목표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이라고 전했다. 그의 꿈도 메이저대회 첫 승이다. 잉글랜드를 유럽 여자축구 챔피언

으로 이끈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 해나 햄프턴(25)은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거미손’으로 우뚝 섰다. 햄프턴은 지난 28일 끝난 2025 여자축구 유럽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120분간 1실점 했다. 상대인 스페인은 이날 22개의 슈팅을 했지만, 햄프턴의 선방에 막혔다. 승부차기에서 3-1로 이긴 잉글랜드는 이 대회를 2연패 했다.

사실 햄프턴은 날아오는 공을 쫓아내지 못한다. 선천적 사시(정면을 볼 때 양쪽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은 상태)다. 어린 시절 수차례 교정 수술을 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초점이 안 맞아 거리감이 떨어진다. 날아온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해 얼굴에 맞기 일쑤였다. 포기하는 대신 혹독한 훈련을 통해 슈팅에 빠르게 반응하는 능력을 키웠다. 잡지 못해도 약삭같이 쳐냈다. 멍투성이가 되도록 온몸을 던져 편철 달인으로 진화했다. BBC는 “햄프턴은 불가능을 이겨내고 잉글랜드의 네비(주전 골키퍼 등 번호)이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2025 모나코 세계육상연맹(WA)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200m 결승에서 노아 라일스(28·미국)는 19초8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024 파리올림픽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 레철레 테보고(22·보츠와나)를 제쳤다. **피주영 기자**

손흥민 미국행, LAFC에 달렸다

LAFC, 이적료로 279억원 준비
손흥민, 토트넘서 연봉 184억원
선수 측 원하는 급료 보전이 관건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 이적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29일(한국시간) “LAFC가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에 손흥민 영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계약 조건에 근접하고 있다”며 “토트넘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손흥민 이적을 허락할 뜻이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스페인 매체 아스도 “LAFC 존 토링턴 단장이 손흥민 영입 협상을 위해 직접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이적설이 무성한 가운데 손흥민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프리시즌 경기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 손흥민이 빠지면 토트넘은 계약에 따라 주 최 측(루

팡플레이)에 초청료(약 40억원)의 75%인 3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손흥민 거취 관련 공식 발표는 없을 전망이다. MLS의 이적 시장은 다음 달 22일 문을 닫는다.

LAFC는 손흥민 이적료로 1500만 파운드(279억원)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2200만 달러·306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최근 올리비에 지루를 내보낸 LAFC는 손흥민으로 ‘지정 선수(Designated Player)’ 자리를 채우려는 계획이다. ‘지정 선수’는 팀당 3명까지 셀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과 무관하게 계약할 수 있는 MLS의 제도다. 인터 마이애미가 지정 선수인 리오넬 메시에게 연봉 2040만 달러(284억원)를 지급하고 있

다. 손흥민 측에서 LAFC에 메시 수준의 연봉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글로벌 매체 포포투는 “손흥민이 기대하는 연봉은 수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LAFC가 생각한 금액을 넘어선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연봉 988만 파운드(184억원)와 함께 초상권 사용에 따른 수익을 별도로 챙겼다.

LAFC의 경우 스포츠 브랜드나 기업 스폰서 등 제삼자를 통해 손흥민 측 요구액을 보전해줄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다. LAFC의 연고지인 LA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한인(32만명)이 거주한다. LAFC는 손흥민 영입에 따른 추가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반대로 손흥민과 헤어질 경우 토트넘은 광고·마케팅에서 한 시즌 111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스포츠 배팅업체 스카이벳은 손흥민의 행선지와 관련한 배팅에서 미국(MLS)행에 가장 높은 배당률(8/15)을 책정했다. 이는 1달러를 걸 경우 1.53달러만 돌려받는다. 사우디행 배당률은 4/5다. LAFC가 조건을 맞춰주지 못할 경우 손흥민은 다음 달 이적 시장이 열리는 사우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사우디 클럽들은 지난 2023년부터 손흥민 영입을 위해 이적료 3000만 파운드(556억원)와 고액 연봉, 다년계약 옵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토트넘 잔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MLS가 내년 2월에 새 시즌을 시작하는 만큼,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6개월간 더 뛰다가 이적료를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감독은 2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손흥민은 다음 시즌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피주영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실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2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북쪽 하인츠(Hampton)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터빌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쪽/한아름(Hampton)과 첼터빌 북쪽에서 각각 5분거리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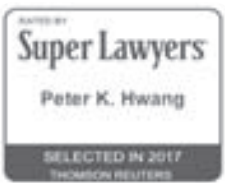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엘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7월

구인

광고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 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컷시티 Cafe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일요일 가능한분, 유/무 경험자
443-386-0515

엘리컷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컷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집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서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펠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서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폴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폴/파타임, 베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골든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한오버 이층방 & 베이스먼트 방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역 타운홈 지하방 하나 옷장, 매트리스, 저녁 식사 제공, 유프 \$500
443-522 -7777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프,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싱글홈 이층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한 싱글홈 이층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방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처, 욕실달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 하나(출입구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패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타임으로 일 하실분을 모십니다. 캐시어하시면서 기술 배우실분 환영
703-691-1993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매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매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서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universa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employeehire13@gmai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제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매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매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매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타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매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매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매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해변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매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패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중앙일보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라썸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
파/폴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뺨/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라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렌트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 화장실 3, 차고 2, 8/1일부터 입주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
지하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

기, 입구 별도, 주차넵, 최근 전부 새로 수

리하였으며, 전화 하면 사진 보여 드림

703-395-4380

센터빌 파월 초,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 3, 화 2.5, 욕,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 1일 입주

▶571-239-6054

스프링필드 타운하우스 End Unit \$3,000

방3, 화 3.5, 집 전체 나무마루,

Walkout Basement, 새 페인트, 새 주방기

기, Granite counter Top, SS appliances,

새 HAVC, Fenced back yard, 넓은 Deck,

밝고 환한집, 좋은 이웃들, 즉시 입주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교,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 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골린 파월 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 car, 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 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3,600 2020년에

지은 새단지 새 타운하우스, 방4, 화5 (full 3,

half 2), 4층 구조, 탁트인 리빙룸, 넓고 고급

스러운 부엌, 2 Car garage, Loft top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전부 업그레이드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새 창문)

고급스런 나무마루, Fence있는 뒷마당, 남

향, 밝은집,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 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1층, 방3, 화2 \$2,500

571-318-1119

애난데일에 위치한 밝고 환한 콘도 렌트

방1, 화장실1,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넓

은 리빙룸 \$1,600 (물값 & 개스값 포함)

▶703-477-3114

센터빌 밝고 환한 콘도 \$2,450

방2, 화2, 업데이트된 부엌, 리모델링 화장

실, 고급스런 나무마루, 탁트인 부엌과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아담한 발코니, 세

탁기, 건조기, Gated Community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스타일콘도 \$2,450

End Unit, 2층 구조, 모두 새 단장,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 창문,

Costco, Walmart와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존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중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스프링필드 (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43-6295

495와 95번이 만나는 메릴랜드 대학 근처

싱글홈 이중방 렌트, 즉시 입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1, 간단 식사,

잠만 주무실분,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571-243-6295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포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

트, 주차넵

703-965-2343

스프링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애난데일 예촌알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 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왓슨하이, 프로스트 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5, 화5.5, 차고 2, 5000sqft 모던 디자인

2. 첸틀리 하이 싱글하우스 \$1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Braddock/Backlick이 만나는 Giant근처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 라이브웨이, sold as is, 동네 시세보다 10만불이상 저렴, 리모델링/투자 가치높음
▶71-239-6054

Triangle타운콘도 \$435,000
2024년 built, 방3, 화5, 4층 구조, Gagage, 고급스러운 부엌, 아일랜드, 나무마루, 새 페인트, 새 텍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애쉬번타운하우스 매매 \$670,000
2012년, 방3, 화3.5, 최고 학교, 딜레스 공항
▶571-239-6054

1. 맥클린 콘도 방1, 화1 \$300,000 762sf
2. 맥클린 콘도 방2, 화2 \$409,000
1,050 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교, Dulles Airport
RT 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콘도매매 \$354,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 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언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 앤드 유닛,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571-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나무마루, 넓은 뒷뜰
▶703-899-8999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렌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앞받침.
2. 매너서스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헨돈 지역)
- \$100,000
- 현지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 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 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 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 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코저 하오니 관심있는분들은 연락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상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 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모다 2배 더되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중고매매/기타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하신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고가구 차단스 3 피스셋 \$4000 주고 구입.
밤색, \$1000 불에 사가실분. 상태 양호
703-939-2737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형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가펍,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올리화재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동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텍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시스템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딩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집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벌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샘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펌프 교체

571.594.4080
24 hours 7days Service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사업체 매매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Cell: 571-278-8211 (David)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 보석 세공,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head out 또는 head on out ; 출발하다

(Doug Michiko Roger and Roberta are talking about plans for a camping trip…)

(더그와 미치코 라저 로버티가 캠핑 계획을 짜면서…)

Roger:So Doug when are you and Michiko leaving for the campsite?

라저: 더그 그래서 너하고 미치코는 언제 캠핑장으로 떠날 거야?

Doug: We’re leaving on Thursday morning.

더그: 목요일 아침에 떠날 거야.

Roberta: We’ll head out on Friday afternoon.

로버티: 우리 금요일 오후에 출발할 거야.

Michiko: Why are you leaving on Friday afternoon?

Why don’t we all go together?

미치코: 왜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 모두 같이 가자?

Roger: I don’t work on Friday but Roberta has a half day.

라저: 난 금요일에 일 안 하지만 로버티는 오전 근무를 하니까.

Doug: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Roberta? 더그: 로버티 일 몇 시에 끝나?

Roberta: I’ll leave at 12 noon instead of 5:00.

로버티: 오후 5시였는데 정오에 끝날 거야.

Roger: We’ll have the car packed when I pick

Roberta up at work.

라저: 회사로 가 로버티를 태우면 차가 꽉 차겠다.

Roberta: So we’ll leave from my job for those beautiful mountains you two keep talking about.

로버티: 그럼 우리 회사를 떠나면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 멋진 산을 향해 가는 거네.

Michiko: This is going to be fun!

미치코: 재미있겠다!

기억할만한 표현

▶ a half day:오전근무(수업)

“We have a half day of classes tomorrow so I’ll be home early Mom.” (엄마 내일은 오전 수업이니까 집에 일찍 올 거예요.)

▶ get off (work):근무를 마치다. 퇴근하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3)바닷물을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소금. 전남 신안군 천사(1004)섬이 최대 생산지이지요 (6)지구를 본떠 만든 모형. 지구본 (7)금실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새. 수컷의 몸 빛깔이 아름답다 (9)뽕죽하게 내밀거나 도드라짐 (10)무의 일과 줄기 (11)야구에서, 타자가 세 번의 스트라이크로 아웃되는 일. 스트라이크 아웃 (12)붉은 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체조 기구 (13)잔치 때 기생이나 악사에게 놀아 준 대가로 주는 돈. 놀口口 (15)육십갑자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나이를 이르는 말.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야 (16)부드러운 가루가 물에 가라앉아 생긴 층 (17)여러 색의 비단 조각을 잇대어서 만든 옷 (19)한데에서 자는 잠 (20)물레 사고파는 표 (21)주의나 경계를 하도록 소리를 울리는 소리 (22)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읽 (23)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 (25)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 (27)남해안의 섬이 많은 바다 (28)남풍. ~에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우다

세로열쇠

(1)즐거 부름 (2)정식 혼인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는 과부나 이혼녀 (3)천사의 옷은 께맨 흔적이 없음.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 (4)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함 (5)옥으로 만든 국새 (8)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보복, 그만뒀, ~은 또 다른 ~을 낳아 (9)세찬 기세로 거침없이 곧장 나아감 (11)모든 빛깔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색깔 (12)예전에, 죄인의 불기를 치던 형구 (13)물건을 살 때에, 팔지 않으려면 그만두라고 썩 낮게 부른 값 (14)파는 음식의 종류와 가격을 적은 표 (15)싸움을 할 때 적의 창검이나 화살을 막기 위하여 입던 옷 (16)양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 (18)형제자매 사이. ~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 (19)이슬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룸.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룸. 진합태산 (20)글을 보지 아니하고 임으로 읽 (22)혼인 때에, 신랑이 신부 집에 타고 가는 말 (23)산속의 나무나 돌 사이에 석별이 모아 놓은, 질이 좋은 꿀(청) (24)쓸데없이 말수가 많음 (26)젓먹이를 태우고 흔들여 잠재우는 물건

스도쿠

2	6	5	4			3		7
	1	3		9	7			5
	7							
3	9		7		2	5		
	2			5	3			1
1	5	8						3
5	4	9				6		
7		1		3				
6							7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2	1	6	4	5	2	3	9
6	5	4	9	3	2	1	8	7
2	3	9	8	7	1	6	4	5
3	2	7	4	9	6	8	5	1
1	9	6	3	5	8	7	2	4
4	8	5	2	1	7	9	6	3
9	1	8	5	2	3	4	7	6
5	4	2	7	6	9	3	1	8
7	6	3	1	8	4	5	9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중앙일보를 추천해주시면
\$100을 드립니다.

Gift Card
\$100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해서 신규 구독 하시면,
소개해주신 독자분께 \$100 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The JoongAng The Korea Daily
지금 전화주세요. 213-368-260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취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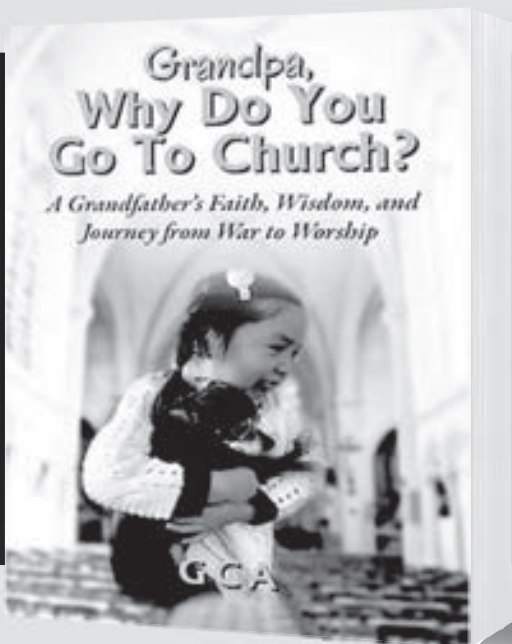
(832)605-4890 · (281)501-2623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

미국에서 자란 영어권 손주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존 또는
Barnes and Nobles에서
책이름 Grandpa,
Why Do You
Go To Church? 로
검색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왜 교회에 가세요?는 저자가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개인적인 메시지로 집필한 책입니다.

또한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줍니다.

이 책에 담긴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진솔한 지혜는,

모든 젊은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자선 기부와 교회 공동체 속 연결의 힘이

어떻게 사람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E-Book원하시는 분께 이메일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Book신청 이메일 주소: jchung1@me.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